PDF자료집

주체 90(2001)년

반통일역적

이회창



반통일역적 이회창

6.15주간 편집부

한민전중앙위

3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4 당면투쟁구호
5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6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주체 89년 12월 8일)
13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을 처단하자 (주체90년 8월 25일)

반통일역적단죄를 위한 특별위원회

14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자

반통일분자 이회창

16 이회창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이 반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7 한나라당이 남북관계개선에 역행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18 한나라당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방해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9 이회창이 평양통일대축전방문단의 통일활동을 걸고듬
20 국보법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반통일망언모음

글

22 이회창은 어떤 자인가
23 이회창은 현대판 놀부
24 이회창을 매장해야한다
25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

성명

27 ≪민족통일촉진운동 북측준비위≫ 한나라당의 남측대표사법처리제기 비난
28 이회창은 반통일적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
29 이회창의 대전강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30 한나라당 규탄 시국성명서

규탄

31 각계층 민중속에서 이회창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2 이회창을 규탄하는 노농대중의 목소리

대중투쟁

33 이회창이 학생들의 저지로 건국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관련해
34 대학생들이 한나라당해체를 요구하며 시위
35 1인 시위의 위력!
36 이회창 규탄 1인시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회창감시단

37 한총련, ≪이회창정치활동 감시 선언≫
38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발족 선언문
38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에게 보내는 경고장
39 ≪기자회견문≫ 이회창총재님! 당신은 이제부터 대학생들의 감시대상입니다

연단

40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는 범죄적 행위
41 이회창 놔두면 제2의 6.25가 터진다

과제

42 반이회창투쟁과 청년학생의 자세
43 반이회창투쟁에서 지성인들의 자세
44 반이회창투쟁과 노동대중의 과제
45 반이회창투쟁과 종교인들의 자세

시

46 권력에 미쳐어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지금 전국민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정면 반대하면서 반통일적이며 반민중적 책동에 미쳐 날뛰는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우리 민중은 칠천만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성과 열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은 민심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6.15공동선언과 그 이행을 결사반대하면서 남북간에 냉전기류를 몰아오며 반북대결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애당초 자주적 평화통일을 원치 않는 이회창은 지난해 4월 남북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가 발표되자 이를 총선용 신북풍사건으로 매도하면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에 제동을 건 악질 반통일분자이다.

이회창은 온 민족과 전인류가 쌍수로 지지환영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의 매조항에 대해 생트집을 걸면서 국민이 환상에 젖어 있다는 심히 쓸개빠진 악담까지 늘어놓았다. 심지어 그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상호주의를 운운하다못해 퍼주기만 하는 대북협력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삐뚤어진 소리까지 하며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돌려세우기 위해 각방으로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더욱이 이회창은 이북이 주적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반면 휴전선일대를 돌아치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극악한 호전분자이다.

특히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국민의 의지에 대해 한미관계손상이라고 심히 모독하면서 민족공조보다 한미공조가 우선이라고 떠들며 친미사대매국적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은 이회창은 미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극구 찬양하며 미국의 현지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다.

60년대부터 악질대법관으로 군사파쇼독재를 뒷받침해온 이회창은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로 조용수사장을 사형했으며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화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무차별적 유혈탄압을 정당화해온 극악무도한 파쇼분자이다.

오늘 이회창은 국내 각계는 물론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반통일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결사반대해 나서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극악한 반통일분자, 불을 즐기는 호전광,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 극렬한 파쇼분자라는 것을 여지없이 실증해 주고 있다. 민족과 민중도 모르고 통일도 안중에 없이 공동선언과 그 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는 이회창의 이러한 책동은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정면 도전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행위이며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편승해 동족과 국민을 죽이려는 잔인한 파쇼광의 친미사대매국행위이다.

오늘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동족의 피도 없는 이회창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실현도 기대할수 없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도 바랄수 없으며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로 격화되어 전쟁으로 치달아 우리 민족이 그 참혹한 희생물로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회창에 체질화되어 있는 반북대결기질과 그를 비호하고 부추겨주고 있는 상전의 대북강경전쟁정책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전국민의 일치한 분노와 의지를 담아 이회창을 우리 민족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흉악한 민족반역자, 극악한 민족의 표적으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원래 친일주구의 후손인 대통령병자 이회창은 사대매국과 영구분열의 일등공신으로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역적중의 역적으로써 이미 전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매장됐어야 할 인간추물이고 악한이다. 대세의 흐름과 민심을 등지고 사대매국과 분열책동에 광분하면서 역대 군사파쇼독재자들을 극구 찬양하며 차기의 파쇼화를 오기 위한 대권쟁탈에 환장이 되어 있는 이회창 역적의 죄악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는 현시기 반북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매국역적과 통일의 걸림돌은 제때에 가차없이 제거해 버려야 한다. 겨레와 민중의 재앙인 이회창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한국민의 수치이며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된다.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한사코 반대하며 피비린 민중탄압에 적극 가담하여 악명을 떨쳐온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위에 올려세우는 것만이 민주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지름길이며 자주화되고 통일된 새조국을 건설하는 바른길이다. 전국민은 민족사의 부름과 요청에 화답하여 반이회창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총분개해야한다.

각계각층 민중은 이회창의 흉악한 정체를 꿰뚫어보고 그 더러운 집권기도를 분쇄하며 민족의 치욕을 더 쌓기 전에 그를 민족의 명부에서 제거해버리고 국민심판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이회창은 이땅의 민심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각계애국민중과 어깨 겯고 발걸음을 맞추며 하나의 목소리로 반이회창투쟁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그를 역사의 시궁창 속에 매장하고 겨레의 간절한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의 영광된 그날을 앞당겨 올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8월 7일
서울

당면투쟁구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기치아래 자주통일의 길로 가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다. 온 겨레가 이 성스러운 대행진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은 그 흐름을 되돌려 세우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6.15공동선언실행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동족과의 대결만을 선동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냉전시대원점으로 돌려 놓으려하고 있다.

민족, 민중에게 화밖에 가져다 줄 것이 없는 이 우환단지가 감히 차기대권을 꿈꾸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회창을 그냥 둬두면 꿈에도 소원인 자주통일을 앞당길수 없고 민족공멸의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된다.

각계 민중은 조국통일의 원쑤이고 국민의 공적인 이회창을 매장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시국의 요청과 국민의 의지를 담아 당면투쟁구호를 발표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적 이회창 제거투쟁의 포문을 열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 결사반대하는 통일의 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반북대결고취하며 북침전쟁 꾀하는 이회창을 때려잡자!

주적론, 상호주의 웬말이냐 통일의 훼방꾼 이회창은 자폭하라!

이회창 그냥두면 남북화해 민족공조 안된다. 민족불화의 씨 이회창을 들어내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추종하는 이회창을 제거하자!

국가보안법 고집하는 파쇼폭군 이회창을 처단하자!

청렴결백 간판들고 부정비리 일삼는 이회창을 심판하자!

이회창이 집권하면 동족상잔 다시온다. 대통령병자 이회창을 반대배격하자!

각계민중은 민족민중의 우환단지 이회창반대투쟁에 떨쳐나서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8월 13일
서울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지금 전국민은 온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반북대결책동에 미쳐 날뛰는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부시행정부패거리들이 떠드는 상호주의요 투명성이요 하는 곡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받아 외우면서 이북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있는 이회창은 얼마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정경유착의 표본이니, 무모한 퍼주기니, 국민혈세의 탕진이니 뭐니하고 마구 헐뜯으며 온갖 악담을 늘어놓다 못해 대북협력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진 소리를 줴쳤다.

심지어 그는 있지도 않는 이북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걸고 들면서 이북이 주적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는가 하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애국애족의 통일일념으로 이북이 내놓은 6.15민족통일대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극우반동보수분자, 극악한 반통일분자로서의 이회창의 흉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통일은 안중에 없이 6.15공동선언 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는 이회창의 이러한 망동은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전면 도전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행위이고 민족의 이익은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정책에 아부굴종하는 추악한 친미사대매국 행위이다.

이회창역적의 반북반통일책동은 미국상전에게 잘 보여 차기대통령자리를 얻어보려는 어리석은 행악질이며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해 파멸의 위기에 처한 반통일분자의 단발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대통령병자인 이회창은 사대매국과 영구분열의 일등공신으로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고 있는 역적중의 역적으로서 이미 전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매장되었어야 할 인간추물이고 악한이다.

반공, 반북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이회창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우리 겨레의 의로운 조국통일운동을 한사코 반대하며 방해해왔다.

지난 97년 대권쟁탈에 나서서 흡수통일을 줴쳐 국민의 비난과 조소를 받은 이회창은 7천만겨레의 지향과 염원이 담긴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주제넘게 남북공동선언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의 통일에서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느니, 국민이 환상에 젖어 있다느니, 북과의 교류협력은 이북의 군사력증강으로 된다느니 하는 쓸개빠진 망발을 늘어놓아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배격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회창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계기로 그 이행에 온 겨레가 한결같이 떨쳐 일어서고 있는 오늘, 대세의 흐름과 이 땅의 민심도 제대로 분간 못하고 앉을 자리 설자리도 모르며 얼간망둥이, 미치광이의 마지막 발악으로 이북을 악에 차서 헐뜯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이회창과 같은 추악한 민족반역자, 반북반통일광신자들이 있는 한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로 돌아가 긴장이 격화되며 정세가 첨예한 전쟁접경에로까지 치닫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는 오늘, 이회창과 같은 정신병자, 매국역적, 통일의 걸림돌은 제때에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

역사는 민의에 도전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파멸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중은 이회창과 같이 온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의 길에 제동을 거는 반공, 반통일분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죄악을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

이회창은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로 향한 민심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회창을 비롯한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매국역적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동족인 이북과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하고 이 땅위에 번영하는 강성부흥조국을 반드시 일떠 세울 것이다.

주체 90 (2001)년 6월 6일
서울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결단과 노력으로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 정세는 급물살을 타며 자주민주통일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가며 매우 좋게 발전하고 있다. 온 민족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조국통일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헌데 내외의 반통일세력들만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환적 국면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이 통일대세를 뒤집어보려고 발악적인 반통일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조국과 민중이 예속과 분단의 고통에 신음할 때 미일외세에 빌붙어 온갖 매국역적질로 호의호식해온 반통일세력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대신 또다시 반통일역적행위로 민족의 가슴에 칼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통일세력의 준동은 미제국주의와 일군국주의의 조종과 비호하에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희대의 사대매국노 김영삼이 미일외세의 낙점을 받아 반통일세력의 수괴로 나서며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으며 이에 고무된 조선일보반동매문지와 이회창, 조성태, 이정빈, 장충식, 김용갑과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도 덩달아 겁없이 날뛰고 있다.

미중앙정보국의 말단통치기관이며 온갖 반북모략의 소굴인 국가정보원도 이에 질세라 프락치공작과 검거선풍에 미쳐 돌아가고 있으며 보안수사대와 국군기무사와 같은 반동기관들도 조작과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내외 호전세력은 통일지향의 평화정세를 흡수통합의 전쟁정세로 바꾸어보려고 ≪을지포커스렌즈≫, ≪독수리-2000≫ 합동군사훈련과 같이 전쟁전야에서나 볼 수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이북의 영공, 영해를 불의에 침범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책동마저 저지르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여 이 땅의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은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반역책동에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반통일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엄중한 도발책동을 조국과 민중의 이름으로, 광범한 대중투쟁의 철퇴로 준엄히 단죄하여야 한다.

반통일세력의 반통일책동은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 개가 짖어대도 기차는 달린다. 한국의 애국운동대오는 반통일미친개들을 정의의 몽둥이로 때려잡고 통일행 기차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이런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간 통신상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참고자료를 준비하였다. 이는 최근 반통일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도발책동들의 양태와 그 본질, 그리고 운동대오의 투쟁방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1) 김영삼역도는 반통일세력의 수괴

희대의 사대매국노이며 천하의 망나니 김영삼역도가 반통일세력의 수괴로 나서고 있다.

김영삼역도는 당대 최악의 사대매국노인 이승만, 장택상의 수하에서 정치에 입문한 역적으로서 미제가 손때묻혀 키워온 숭미사대주의가 골수에 박혀있는 철저한 친미사대분자이다. 미제는 야심가이고 막무식꾼이며 겉으로는 기독교신자요, 속으로는 간통강간범인 약점투성이 김영삼역도야말로 다루기쉬운 앞잡이정상배로 낙점찍고 그 정치경력을 관리해 주었다. 특히 미제는 이 역도를 군사파쑈도배들에게 솜방망질을 하며 앙탈을 부리는 정치매춘부로 키우며 마치 민주투사인 듯 분장시켰다.

결국 미제의 전적인 사주와 비호하에 권좌에 오른 김영삼역도는 미제의 일급주구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며 전무후무한 매국역적질만 저질러 왔다.

김영삼역도는 조미관계를 전쟁국면으로 끌고가며 미제의 핵전쟁머슴꾼으로서 천추에 용납못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미제의 가장 호전적인 주구로서 6.25전쟁의 전범 중의 하나인 이승만역도도 혀를 내두를 전쟁미치광이의 도발이었다. 또한 김영삼역도는 이북이 대국상으로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겨있을 때 이른바 ≪조문파동≫이라는 천하의 망나니짓, 패륜패덕만행을 저지르며 남북관계를 극한으로 치닫게 한 역대최악의 반공화국대결광신자였다.

김영삼역도는 미제의 사주아래 집권 첫 해에 한국농업과 민족의 생명을 ≪우루과이라운드≫로 끊어버리더니 집권 마지막 해에는 한국경제를 아예 통째로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에 밀어넣었다. 역도는 수만개의 기업을 파산시키고 천만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수많은 가정마저 파탄시켜 가장은 노숙자로, 주부는 매춘부로, 자식은 고아원으로 떠돌게 만든 희대의 경제학살자, 기업말살자, 가정파괴범이다.

김영삼역도는 역시 미중앙정보국의 공작하에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는 의로운 청년학생들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제2의 ≪광주사건≫인 ≪연대사건≫을 일으키고 한총련을 이른바 ≪,이적단체≫, ≪폭력단체≫로 매도하였다. 역도는 또한 조국통일기관차인 범민련을 역시 이른바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강희남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건실한 애국인사, 통일인사들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역도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비롯한 온갖 파쑈적 폭압도구를 휘두르며 애국운동, 민중운동을 탄압한 사례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김영삼역도야말로 전대 군사파쑈광들도 낯을 붉힐 문민파쑈광, 문민망나니인 것이다.

김영삼역도는 배짱이 딱 들어맞는 정태수와 야합하여 역대최대부정선거로 당선되더니 결국 한보비리를 저지르며 여기서만 무려 3조가 넘는 돈을 횡취했다. 역도가 그 무슨 ≪정치권 사정≫이다, ≪금융실명제≫다, 뭐다 하며 정재계에서 빨아들이거나, 공기업들에 심복들을 낙하산 인사시킨 후 여기서 횡령하거나, ≪고속전철≫이다, ≪신공항≫이다 뭐다하며 대형공사를 추진하며 받아먹거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경제신탁통치로 넘어갈 때 외국자본으로부터 챙기거나 해서 재임기간 이렇게저렇게 축재한 검은 돈은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자라는 것이 외국언론들의 보도

이다. 하여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김영삼역도를 단군이래 최대 도적놈이라고 규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희대의 사대매국노, 파쑈광신자, 반통일분자, 부정부패왕초인 김영삼역도는 권좌에서 쫓겨난 지금 자신의 대죄를 뉘우칠 대신 또다시 외세를 등에 업고 반북반통일행각으로 민족과 맞서며 통일대세에 역행해 나서고 있다.

김영삼역도가 미일외세를 등에 업고 반통일세력의 수괴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역도가 철저한 숭미사대매국노이며 반공반북반통일분자라는 점이다. 이는 역도의 전 정치역정과 집권기간의 행태가 입증하는 바이다. 그것은 또한 역도가 현집권자의 정치계의 맞수라는 것이다. 현집권자가 이북과 통일지향의 합작을 선언하고 나선 지금의 정세에서 이를 견제하고 통일정세를 바꿀만한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역도가 아직 지역기반과 하수인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직을 관리할 충분한 검은돈을 축재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도의 총알받이형 기질, 돈키호테식 성격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역도는 6.15공동선언 이후 ≪민주산악회≫라는 반민주반통일집단을 재조직하고 ≪기자회견≫이다, ≪정치강연≫이다, ≪산행≫이다 뭐다 하며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분주탕을 벌이고 있다.

역도는 ≪000은 독재자다≫, ≪000은 6.25전쟁을 사과해야 한다≫, ≪이북을 비판하는 것은 이북에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등 감히 이북의 최고수뇌부와 체제까지 시비를 걸며 천하의 망나니다운 막말과 황당한 궤변을 마구 늘어놓고 있다.

또한 역도는 ≪000이 회장이면 김대중은 전무다≫, ≪북에 돈 주는 것이 교류냐≫, ≪태풍으로 어려운데 이북에 쌀지원해주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라고 하는 등 온갖 망언을 줴치며 현정권의 통일지향적인 정책들에 일일이 딴지를 걸며 훼방을 놓고 있다.

또한 역도는 남북공동선언문의 통일방도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집권기간 자신이 내걸은 이른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것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

심지어 역도는 이북의 최고수뇌부를 걸고들며 감히 ≪서울답방반대 2000만서명운동≫이라는 반공반북캠페인까지 벌이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역사에 둘도 없는 인간쓰레기이고 반통일역도인 김영삼놈의 이러한 망언들은 대세의 흐름도 이남의 민심도 가늠하지 못하는 정치망나니, 반공이 골수에 배길대로 배긴 추악한 민족반역자만이 떠벌일수 있는 쓸개빠진 넋두리이다. 역도의 이런 망발들은 1994년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기회를 놓치고 이북과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밀려난 인간퇴물, 반공악질분자의 심술궂은 푸념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막말과 궤변은 응당 각계 양심인사와 언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총련은 김영삼역도를 ≪반통일우익보수세력의 막가파 행동대장≫이라고 정당히 규정하며 ≪이번 반민족적 경거망동으로 김영삼 당신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한치도 없음을 알린다≫라고 준엄히 단죄하였다. 민주노동당 김종철부대변인도 ≪헌법 전체의 정신이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는 것임을 망각하고 일부 조항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현재 남북간의 화해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리려는 김 전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변호사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양보에서만 가능하며, 김 전대통령 자신이 주장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상대방 체제에 대한 부분적 인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모하고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중단하고 위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마저도 논평을 통해 ≪국가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 자중자애하기는커녕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 엉뚱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일삼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통탄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라≫고 규탄하였다.

그런가 하면 고려대학교에서 그 무슨 강연을 한답시고 주접을 떨다가 정의로운 애국학생들의 단호한 응징에 호된 타격을 받고 열네시간동안이나 좁은 차안에서 온갖 추태를 떠는 망신만 당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반김영삼투쟁은 전민족의 지지와 찬사를 받은 훌륭한 모범으로서 널리 일반화되어야 한다.

한편 김영삼역도는 자신의 재임기간의 온갖 부정부패와 그릇된 정책, 그리고 현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파탄난 지역경제의 책임을 현정권에 돌리며 기만적인 언행으로 망국적인 지역감정까지 되살리고 있다.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의 망언을 일삼으며 또다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역도야말로 지역감정에 기생하는 구시대 정상배의 전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 김영삼의 해괴한 망발과 반역행각은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의 궤변과 망동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그 무슨 ≪2천만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조건에서 김영삼역도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식의 소극적인 입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영삼역도의 반통일망언과 행각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철저히 분쇄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삼역도는 말그대로 희대의 사대매국노이며 선임군사파쑈광들을 능가하는 문민파쑈광이며 역대 최악의 반통일분자이며 단군이래 최대도적놈이다. 이런 역도가 있을 곳은 오직 철창안이고 사형장일 뿐이다.

이미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혀 온갖 악취를 뿜고 있는 천하의 망나니 김영삼역도에 애국운동대오는 준엄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며 그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김영삼역도를 내세워 감히 통일국면을 되돌려 세워보려고 책동하는 미제와 반통일세력의 기도를 초장부터 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2)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의 발악적 준동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김영삼역도가 반통일행각에 미쳐돌아가니 온갖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도 덩달아 날뛰고 있다.

먼저 야당당수라는 이회창역도이다. 이자는 김영삼역도의 손아래 하수인으로서 그 배경으로 국무총리를 해먹더니 여당대통령후보를 거쳐 지금은 야당당수가 되어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는 정치협잡꾼이다. 이회창역도가 야당당수로서 지난 3년간 보인 모습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편 사소한 쟁점에 사로잡혀 국회를 공전시키며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치 앞도 못보는 역도는 기존 정치인을 능가하는 ≪말바꾸기≫의 능수가 되었으며 현재는 반통일행각과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열을 올리며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회창역도는 지난 97년 대권싸움에 나서서 ≪흡수통일≫을 외쳐 국민의 비난과 조소를 받은바 있는데 이번에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기반의 통일에서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환상에 젖어있다≫고 고아대면서 ≪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기반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고 주절거림으로써 국민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역도는 또한 감히 이북의 최고수뇌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획책하였는가 하면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느니, ≪비전향장기수와 그 무슨 ≪납북자≫들을 ≪상호주의≫원칙에서 교환하여야 한다≫느니,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한다≫느니,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한다≫느니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망발을 마구 해대고 있다.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실천에 한결같이 나서고 있는 때에 입만 벌리면 공동선언을 시비질하며 헐뜯고 그 이행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는 이회창은 자신이 동족의 피도 없는 국적불명의 사생아, 둘도 없는 민족반역자임을 스스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의 이같은 언동들은 대세의 흐름과 이 땅의 민심도 분간 못하는 정신병자, 남북의 긴장격화와 대결만을 바라는 악질 반통일분자의 단발마적 발악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지금 내외 여론이 이회창을 두고 민족의 탈을 쓴 역적으로, 질투심에 미쳐 시대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천치바보, 철부지로 신랄히 조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다음으로 극우매판매문지인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사대매국세력, 극우호전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대표적인 반북모략지이다. 조선일보는 광복전에는 일제식민지정책의 나팔수로 적극 복무했고 광복후에는 미제와 친미독재권력에 아부굴종하고 그를 미화분식하며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로를 걸어왔다.

이 조선일보매문지가 지난 수십년간 일관되게 보여왔던 반북반통일역적질은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군사파쑈정권시절엔 광주항쟁 당시 민중을 ≪폭도≫로 규정하는 등 온갖 반북모략사건을 선전하며 안기부의 언론창구역할을 하였다. 이런 반북모략사건은 언론공작이 더욱 노골화된 김영삼반역정권 시절에 보다 강화되어 97년에는 감히 이북의 최고수뇌부를 정면으로 걸고드는 천추에 용납못할 만행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제의 대북핵전쟁계획에 발맞추며 전쟁미치광이의 어용나팔수역할을 하며 반민족행각의 극을 달리는 특급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런 반북모략지, 반북매문지이기에 지금도 역시 6.15공동선언 이후 매우 좋게 발전하는 남북화해와 단합의 기류를 거역하고 이에 인위적 장애를 놓는 반통일행각에서도 앞장에 서고 있는 것이다.

이 반북모략지의 이북관련기사들은 대개가 이북의 존엄높은 체제와 이념, 사회상과 생활방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헐뜯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를테면 ≪북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느니, ≪북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느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도 북한의 생존적 차원에서 자세를 취하는데 따른다≫느니, ≪북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다≫느니, ≪남과 북의 주의와 이념에 따르는 두 체제의 통일방안이 절충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느니,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느니 하며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지난 8월7일 학계, 문인, 종교계, 시민운동권 등 사회각분야의 1백50여명 인사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 인터뷰를 거부하는 선언식을 가진 후 조선일보배척기운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조선일보배척운동에 서명한 성공회대 김서중교수는 ≪기업이 잘못된 물건을 팔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나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이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대기련, 전영기련, 전교련, 전국대학신문연석회의 등이 결집된 전국대학언론단체들이 반역사적, 반통일적 여론을 조성해온 조선일보반동지를 반대하는 ≪극우반동신문 조선일보 규탄을 위한 대학언론인 결의대회≫를 조선일보사 앞에서 개최하여 내외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사회각계에서 터져나오는 조선일보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배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이런 반통일행각은 명백히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심히 배치되며 동족사이의 불신과 반목, 대결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위인 것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저해를 주는 이따위 반통일행위는 언론의 ≪자유≫문제가 아니라 엄중히 다스려야 할 특급반역죄에 해당한다. 조국통일의 길우에 가로놓인 걸림돌인 이따위 반북모략지는 반드시 정의와 역사의 이름으로 폭파시켜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그밖에도 조성태국방부장관, 이정빈외교통상부장관, 장충식한국적십자총재, 김용갑한나라당의원 등과 같은 온갖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이 제 분수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그 무슨 기자회견이니 국회발언이니 하며 감히 이북의 존엄높은 체제를 시비걸거나 황당한 궤변과 망나니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군사깡패 조성태는 이미 6.15공동선언 이전에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호전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헌데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도, 이번 10월 20일 국회국정감사에서 ≪북의 군대는 언제든지 도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떠들면서 감히 반북대결을 고취했다. 반북호전분자 조성태의 망발은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도전이며 이북에 대한 용납못할 중상모독이다.

인간추물 이정빈은 여성비하발언의 장본인답게 사방에서 망언망발을 늘어놓았다. 특히 유엔총회의 연설이라는데서는 무엄하게도 지난 6월에 있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망발을 한 것이다. 이는 유엔무대에까지 가서 떠들어댄 반통일일당들의 황당한 반북궤변이며 용납못할 모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정빈역도가 떠들어댄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햇볕정책≫의 변종으로서 외세에 의존하여 대화상대방을 어째보겠다는 반통일궤변이고 ≪흡수통일정책≫, ≪승공통일정책≫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정빈역도는 일부 당국자들과 그 무슨 ≪미얀마≫사건 추모행사라는 것까지 벌여놓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공작기관이 저지른 자작모략극을 이북과 관련지어 부각시킴으로써 이북에 들씌운 ≪테러≫고깔을 유지해보려는 교활한 여론조작책동인 것이다.

반북반공분자 장충식은 한국에서 극우익언론으로 지탄받고 있는 월간 ≪조선≫과의 회견에서 숭고한 인도주의사업인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남북사이의 제도간의 대결문제로 공언하며 이북의 존엄높은 정치체제와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생활방식까지 비방중상하였다. 이는 적십자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발로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배치되고 인도주의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반통일행각인 것이다.

정치깡패 김용갑은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앞장서는 것은 이북의 통일전선전략 수행에 앞장서는 격≫이라느니 ≪민주당은 이북 노동당의 2중대≫라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고 한나라당은 대변인 권철언을 내세워 이를 적극 지지해 나섰다. 군사파쑈정권시절부터 망나니 정치깡패로서 분별없이 나서기 좋아하던 김용갑역도나 이런 놈을 비호하며 반북모략행각에 피눈이 된 망나니소굴 한나라당이나 민족, 민중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되고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그런가하면 지난 10월 5일에는 이남의 ≪건국회≫를 비롯한 반공단체의 깡패 100여명이 서울에서 그 무슨 ≪집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이북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걸고들며 6.15공동선언에 전면 도전해 나서는 심상치 않은 난동을 부렸다. 반동깡패들이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온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때에 현정부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수도 한복판에서 백주에 공공연히 활개치며 이북체제를 모독해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은 몇몇 악질분자들의 우발적 사태가 결코 아니라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행위인 것이다. 더 나아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을 막아보려고 발광하는 한편 실제 답방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식으로 반북난동을 벌일 것인지 생동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극익반공분자들의 발악적 준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반통일역도들의 황당한 망발과 발악적 책동은 갈수록 그 도수를 더해갈 것이다.

겉으로는 산발적인 이런 반통일책동들엔 사실 내외의 반통일세력, 극우호전세력의 위험천만한 음모가 숨어있다. 분단기득권세력들은 당면해서는 6.15공동선언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통일평화정세를 막아보려고 책동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정세를 완전히 전복시켜 전쟁도발의 극단적 망동마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반통일일당들의 배후에는 반북반통일공작에 이골이 난 미중앙정보국이 있고 그 말단하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손때 묻혀 키워온 정치인, 언론인, 교수 등을 내세워 궤변과 망동의 경쟁을 시키며 차세대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온갖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이 상전 미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앞다투어 백색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3) 반통일공작에 피눈이 된 국가정보원

악명높은 국가정보원이 반통일공작에 피눈이 되어 미쳐 날뛰고 있다.

잘 알다시피 국가정보원은 미중앙정보국 한국지부의 말단하부기관으로서 미중앙정보국이 직접 만들었고 미중앙정보국의 졸개들이 지휘하며 미중앙정보국의 각본과 정보에 의해 운영되는 철저한 사대매국, 파쑈모략의 범죄집단이다. 현정권은 미제의 지령하에 악명높은 국가안전기획부, 곧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격상시키며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그 소굴을 바꾸었지만 개가 사람으로 될 수 없듯이 그 본질은 결코 바뀔 수 없다.

미중앙정보국의 현지 말단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이 그간 저지른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책동은 셀 수 없이 많다. 이 특급범죄집단은 상전이 시키는 대로 ≪문세광저격≫사건, ≪박정희암살≫사건, ≪아웅산테러≫사건, ≪칼기폭파≫사건, ≪이한영암살≫사건 등의 테러사건과 ≪통일혁명당≫사건, ≪남조선민족민주전선≫사건,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구국전위≫사건, ≪민족민주혁명당≫사건, 등 수많은 조직사건을 조작하여 미제와 그 주구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파쑈모략의 소굴 국가정보원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인사, 통일인사들을 고문과 폭력으로, 테러와 사형으로 학살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고문과 테러에 의해 반신불수가 되거나 정신병환자가 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국가정보원은 또한 돈과 향락으로 매수하거나 고문과 위협으로 배정환, 김영환과 같은 변절자들을 만들어내 운동대오 속에 깊이 박아넣고 프락치로 이용해먹고 있다.

이런 반북반통일집단인 국가정보원이기에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과 평화의 정세가 도래하자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으로 사활적인 발악책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고문과 모략의 소굴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사건을 재조작하여 통일정세를 뒤집어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진수, 한용진씨 등 적지않은 애국운동가들이 고문을 받으며 철창 안에 수감되었다. 이 모략기관은 또한 희대의 변절자 김영환이나 조혁과 같은 너절한 반북분자들을 동원하여 반북모략극을 벌이는가 하면 운동대오를 분열와해시키려는 이간책동까지 벌이고 있다. 김영환이나 조혁과 같이 변절한 후 국가정보원의 개가 되어 반북모략책동에 나서고 있는 놈들도 앞서 열거한 반통일분자 못지 않은 인간추물들이며 반통일역적들이다.

조직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모략기관 국가정보원의 대표적인 임무이다. 이 모략집단은 ≪민족민주혁명당≫사건의 재조작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최소한의 분별력도 잃고 이른바 ≪충북지역간첩단≫사건이니, ≪백두청년회≫사건이니 하는 조직사건을 터뜨려 통일정세, 완화국면을 뒤집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물론 이런 조작놀음에 속을 한국의 운동대오가 아니며 국민대중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유치한 조작음모는 충북지역의 애국적 대중단체의 폭로투쟁과 지태환씨와 이은경씨의 영웅적인 아사단식단수투쟁, 완전한 묵비권행사로 철저하게 파탄났다. 빈깡통 김영환역도가 국가정보원의 고문맛을 보기 바쁘게 변절한 까마귀라면 최근에 구속된 청년여성영웅 이은경씨는 그런 고문을 묵비단식투쟁으로 이겨낸 백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폭압수사는 오히려 한국의 새로운 청년영웅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가정보원이 보안수사대와 국군기무사를 조종하며 자행되고 있다. 백만학도의 대표조직이며 애국적인 대중조직인 한총련은 여전히 이른바 ≪이적단체≫로 매도되고 그 대의원들은 마녀사냥감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모략기관이 심은 프락치들은 대학내에 잠입하여 선거를 훼방하고 학생운동을 분열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한신대조직사건≫과 같은 군입대한 운동권출신들을 묶어서 터뜨리는 해묵은 수법까지 재등장하고 있다.

출판보도분야에 대한 공안탄압이 빠질리 없다. 정보모략기관은 인터넷 ≪청춘≫을 탄압하고 그 대표 윤여창씨를 구속하더니 ≪살림터≫ 출판사의 송영현사장마저 구속시키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 사건들은 국가보안법의 이른바 ≪찬양고무조항≫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한편 만약 그 조항이 개정될 때를 대비한 사전정비작업의 일환으로서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는 악질적인 반동공세가 아닐 수 없다.

감시와 모략의 소굴 국가정보원은 그간 ≪진보네트워크≫를 압수수색한다 뭐다 분주탕을 치더니 최근에는 손아래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를 사촉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국가보안법인 ≪통신질서확립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가상공간에서까지 삼중사중으로 감시하려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실행된다면 운동대오의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모든 ≪피시방≫, 전국민의 모든 컴퓨터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그 안의 모든 정보는 국가정보원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야말로 해킹을 반대한다는 미명하에 해킹 중에서도 가장 악의적인 해킹을 전면적으로, 합법적으로 자행하려고 하는 인터넷시대의 특급범죄집단이다.

국가정보원이 올한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작은 무엇인가. 바로 통일운동대오에 대한 분열이간책이다. 그 결과 한국의 통일운동대오는 적지않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해결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범민련 분열의 원흉인 분파주의자들이 누구인지, 한총련 침체의 원인인 관료주의,

보신주의, 분파주의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려보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대학선거 결과를 통하여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국가정보원의 분열모략책동은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머지않아 범민련과 한총련의 참다운 단결과 힘찬 투쟁은 예전의 모습을 훨씬 뛰어넘으며 비약을 맞이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김영삼역도를 비롯한 온갖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에 줄을 늘여놓고 반통일공작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해체될 때까지 반통일모략책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반통일모략책동은 국가정보원의 본업이며 사활적 과제이다. 내외의 반통일세력, 호전세력이 반통일공세를 다그치고 있는 이 때에 국가정보원은 더더욱 그 돌격대로, 모략기관으로 미쳐날뛸 것이다.

4) 내외 호전분자들의 위험천만한 전쟁책동

내외호전분자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다.

≪독수리-2000≫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긴장된 상황에 이남의 전투기와 전투함이 각각 이북의 영공과 영해를 고의적으로 침범하였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며 조국반도에 통일과 평화의 기운이 높아져 가는데 극도의 위기의식을 느낀 내외의 호전분자들이 국면전환을 위한 제2의 ≪서해사건≫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침략과 약탈을 떠난 제국주의란 없다. 하여 제국주의의 사냥개들인 극우호전분자들은 하나같이 전쟁미치광이들이다. 미제국주의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쏘미냉전으로 비대해진 군산복합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라크전≫이나 ≪유고전≫과 같은 국지전을 매년 벌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중증환자이다.

조국반도는 이런 미제침략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는 제1선이다. 미제침략세력은 이미 북침핵전쟁시나리오인 ≪5027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90년대 내내 ≪핵사찰≫이다, ≪금창리≫다 뭐다하며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구실만 찾아왔다. 급기야 작년에는 전쟁직전에서나 볼 수 있는 ≪서해사건≫까지 일으켰다.

만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활한 군사전략과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이 없었다면, 일심단결의 조선인민이 없었다면 조국은 진작에 핵전쟁으로 불바다가 되어 전민족은 핵참화의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전략, 담력에 의하여 90년대의 조미핵대결전에서 패배한 미국은 본질상 조미수교와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조미기본합의문≫과 이를 재확인한 ≪조미공동코뮤니케≫에 항복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국반도의 전쟁먹구름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으며 내외의 호전분자들도 여전히 악랄하게 발악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선 제1차 세계대전처럼 총성 한발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내외 호전분자들의 반북전쟁책동은 지금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우선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판 ≪트루만주의≫인 ≪신냉전≫정책을 세우며 ≪유고전쟁≫때에는 중국대사관까지 폭격하는가 하면 그 무슨 ≪동북아시아의 위협≫이니 하는 것을 조작하며 그 대응책으로 환상적인 ≪국가미사일방어체계≫니 ≪전역미사일방어체계≫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에 발표된 미공화당의 ≪강령초안≫이라는데서는 조선을 염두에 두고 조국반도에서 그 무슨 침략행위를 억제하고 대량살육무기의 전파를 막으며 효과적인 미사일방패들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군수독점체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고 서유럽나라, 일본 등을 계속 손아래에 두기 위한 세계제패전략에 다름아닌 것이다. 하여 현존군사능력을 초월하여야 하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환상적 계획을 가능하다고 여론을 조작하며 모험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군국주의의 전면적 발호와 전쟁준비의 완성이다. 최근 일본방위청은 ≪2000년 방위백서≫라는데서 조선이 핵무기개발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을 뿐아니라 화학무기용화학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전후 미국을 등에 업고 급속히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이제 간이 부어서 핵무장화와 군사대국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선을 걸고들며 무장장비의 현대화, 장거리화, 전략무력화를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미일방위협력지침관련법(전쟁법)≫이 채택된 후 주변사태를 가상하여 진행되는 첫 실동훈련인 ≪미일공동통합연습≫이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일본영토에서 진행되었다. 일본은 한편에서는 대화니 협상이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자위대≫육해공군과 일본주둔미군, 미태평향함대소속 무력까지 동원하며 사상초유의 종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주변사태공동대처≫의 미명하에 일본을 저들의 전쟁수행에 동원하여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적극 참가하는 식으로 ≪자위대≫무력의 해외침략을 실현시켜 군국주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리총리의 ≪신의 나라≫발언, ≪히노마루≫의 국기화와 ≪기미가요≫의 국가화, 각료와 의원들의 ≪야스구니진쟈≫공동참배, 육상≪자위대≫의 무력개편, 수도 한복판에서의 열병식, ≪종합재해방지훈련≫, ≪방위청≫의 ≪국방성≫승격놀음, 미국의 대일헌법개정요구, ≪불심선≫추적사건, 도꾜지사의 ≪북선≫발언, ≪일본인납치≫시비, 기만적인 재일동포의 ≪참정권≫놀음, 우익깡패들의 반조선, 반총련소동, 침략미화교과서편찬놀음, ≪독도망언≫ 등 일본의 국내 파쑈화와 전시체제화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되어 이제는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 이후에 자행되고 있는 반북전쟁책동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조국반도에 전례없는 통일과 평화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미일한 전쟁미치광이들은 연일 호전적인 발언을 해대는 한편 각종 합동군사훈련과 모험적인 대북도발책동까지 벌이고 있다. 한국의 군사깡패 조성태국방장관은 올해 5월 말에 일본에까지 날아가서 남북최고위급회담에 대처하여 미일간의 공조와 군사협력과 교류를 떠벌이며 회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가하면 6월말에는 한국 임시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완벽한 안보태세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데 밑바탕이 되었다≫는 얼빠진 주장을 하였으며 심지어 이북을 ≪주적≫으로 명시한 군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올해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훈련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유사시 한국과 미국 군대의 협동작전능력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한국강점 미군 1만 3천명과 미국본토와 괌도, 일본 등지에 있는 예비군 3천 8백명, 한국군 5만 6천명의 방대한 병력이 참가하였다. ≪을지포커스렌즈≫군사연습은 미국과 한국 당국이 조선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하여 벌이는 대표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서 ≪팀스피리트≫훈련이 중지된 후 그 기능까지 포함시켜 발전시킨 하나의 종합적인 북침공격훈련이다. 미국과 한국의 호전세력들은 9월 13일 대구부근의 ≪전투기념당≫이라는데서 6.25전쟁시기의 ≪전투50주년기념≫놀음을, 14일부터는 2일간에 걸쳐 ≪인천상륙작전 50주년기념≫광대극을 벌이기도 하

였다. 또한 18일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미사일사거리≫연장을 위한 모의를 벌였으며 20일에 열린 제22차 ≪미국한국군사위원회≫에서는 그 무슨 ≪연합방위태세향상≫이요, ≪군사동맹관계강화≫요 하는 대결전쟁넉두리를 늘어놓았다. 한국의 호전분자들은 전쟁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부터 서울까지의 전구간에 1백만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하고 수많은 자폭식지뢰를 살포할 계획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10월에 들어서도 한국의 호전적인 군사당국은 지난해에 비해 6.5프로나 늘어난 내년도 국방예산의 세부내용과 이른바 ≪2001-2005년도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군사당국은 이를 통해 7천톤급 이지스함과 4천톤급 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들과 공격용직승기, 무인정찰기, 유도무기 등 현대적인 최첨단 전쟁장비들을 새로 실전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반북호전분자 조성태는 국회국정감사에서 ≪북의 군대는 언제든지 도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떠들면서 반북대결을 고취했다. 그리고 이북의 거듭대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당국은 수많은 미국제 전쟁장비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10월 25일부터는 또다시 이북을 반대하는 대규모 ≪독수리-2000≫이라는 합동군사훈련을 기어코 벌여놓았다. 더욱이 ≪독수리-2000≫합동군사훈련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은 10월 26일 11시 22분경 전투기 2대를 불의에 개성시 판문군 일대 북측영공 깊숙이 침투시키는 엄중한 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11월 14일 8시 30분경에는 한국군해군전투함정 4척을 10척의 어선집단속에 끼여 장산곶 서쪽 이북측 영해 깊숙이 침투시켰다. 한국군해군전투함정은 조선인민군해군경비정이 긴급출동하자 어선들을 빼돌리고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며 한국해군전투함선 3척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이북측 영해를 침범하였다. 대규모 북침전쟁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는 즈음에 감행된 이 모험적인 도발책동들은 완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으로서 6.15공동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며 제2의 ≪서해사건≫, 제2의 조국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험천만한 모험극인 것이다.

내외 극우익호전분자들의 모험적인 전쟁책동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새로운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조국반도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며 조국반도의 완전한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선 조미간에 체결하고 세계에 확약한 ≪조미기본합의문≫과 ≪조미공동코뮤니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국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모험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 대결선동, 전쟁책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을 부추기며 벌이고 있는 일군국주의의 재무장화, 일본의 파쑈화정책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미일한 호전분자들은 조국반도에서의 전쟁이 전지구적 최대재앙을 불러올 핵전쟁이 될 것이며 그 후과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본토에까지 미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류대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제2의 조국전쟁은 미제의 간첩 박헌영이 남로당에 박혀 암약하던 6.25당시와는 180도 다르다. 우선 조선은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들이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 조선인민군의 섬멸적 타격을 피할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변혁의 사령탑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지난 수십년간 한국변혁운동을 현명하게 영도함으로써 내외에 절대적인 권위를 이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변혁운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여 각급 변혁적 대중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지금은 범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고 대규모의 민족민주전선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변혁의 주체역량이 장성한 상황이다.

하여 조국반도에서 또다시 미제와 그 호전적인 주구들이 기어코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오히려 우리 민족, 민중은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 미제와 그 주구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전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 미일호전분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며 놈들이 그간 조국반도에서 저지른 온갖 학살만행과 범죄사건에 대한 대가를 천추만대를 두고 받아낼 것이다.

5)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책동을 애국적 대중투쟁으로 분쇄하자

우리 애국운동대오는 이런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책동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우선 반통일일당들의 수괴로 나서고 있는 김영삼역도에 투쟁의 과녁을 집중하여야 하며 김영삼역도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애국운동대오는 제한된 투쟁역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먼저 반통일일당들의 수괴로 나서고 있는 김영삼역도를 집중타격하여 그 망나니기세를 꺾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역도가 겁없이 이북의 최고수뇌부를 걸고들며 그 무슨 ≪서울방문반대 2천만서명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기회에 희대의 사대매국노이며 파쑈광, 전쟁광이며 부정부패의 왕초인 반통일역적 김영삼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김영삼역도와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 국가정보원과 같은 모략기관들, 내외호전분자들과 같은 온갖 반통일세력들이 지금 발악적으로 준동하고 있는 배경은 바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통일과 평화의 정세가 급격히 성숙되는데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하여 우리는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책동들을 분쇄하는 한편 통일평화정세를 더욱 성숙시키는 적극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통일평화정세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투쟁은 다름아닌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그 이행이며 특히 머지않아 이루어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의 성과적이고 안전한 성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애국운동대오는 민족자주선언이며 통일지향선언이며 민족단합선언인 6.15공동선언에 대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널리 선전하며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업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6.15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내외 반통일세력들과 투쟁하는 한편 현정권이 그 이행사업을 성실하게 전개하도록 압박하여야 할 것이며 연방제통일방안을 널리 홍보하고 대중적인 자주교류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주체를 마련하는 것이 절박한 조직적 과제이다.

무릇 주체가 강화되어야 운동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 법이다. 우리 애국운동대오는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진압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통일운동연대조직을 건설함으로써 시급히 대열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반통일세력들이 미제국주의의 조종하에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는 더욱 절박한 과제로 된다.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범국민통일연대조직은 민화협을 제외한 모든 6.15공동선언지지세력을 망라하는 광범한 연대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에는 민화협과 적극 연대하며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애국운동대오는 ≪통일운동연대준비위≫와 ≪실천연대≫라는 두 개의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연대조직을 건설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이 두 개의 연대조직은 그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며 투쟁해온 주체면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다. 다시말하여 두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헌데 양측은 어느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을 보고 해소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식이라면 거부하겠다고 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마치 범민련이 이종린선생측과 강희남선생측으로 분열되어 다투던 양상이 확대재연된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는 모든 운동가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원칙을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범국민통일연대조직을 범추본처럼 범민련이 중심이 되어 6.15공동선언이행에 공감하는 광범한 세력을 단일하게 결집하며 건설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범민련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측은 이런 연대조직건설을 홀시하였고 상대측은 범민련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일부 단체들만으로 조급하게 연대조직을 건설한 것이다.

또한 구동존이원칙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같은 목표를 가진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성을 우선하고 차이성을 존중하며 통일단결과 실천투쟁을 지향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사실 단결을 이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통합에 대한 진전된 소식은커녕 반통일세력들과의 공동투쟁 소식하나 들리지 않는다.

또한 투쟁을 우선하고 기층에 근거하는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반통일세력들은 간악하게 준동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서울답방도 멀지않은 중차대한 국면이다. 기층은 반통일세력과의 투쟁,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잡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고 함께 투쟁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방도로 된다. 이제라도 이상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시급히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운동에서 분열은 백해무익한 이적행위로서 여기에 기생하는 것이 국가정보원과 같은 모략기관이다.

모든 통일운동가와 기층단위는 과연 누구누구가 당면한 반통일역적들과의 투쟁을 태공하며 통일운동대오를 분열시키는가를 똑똑히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운동대오는 일체의 패권주의, 분파주의를 배격하고 당면한 반통일세력들과의 투쟁에 공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반드시 해를 넘기지 말고 조직통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책동에 대한 투쟁에서는 폭로전, 대중전이 중요하다.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의 본질과 죄악상을 제때 낱낱이 폭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로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국민대중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세의 요구와 대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 좌경적인 방식외에는 모든 수단과 형식, 방법을 동원하여 창발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는 투쟁을 대중자신의 투쟁으로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민족의 통일과 평화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반역행위인만큼 우리 민중이 반통일역적들의 준동의 해악성을 깨닫기만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운동대오는 이후 건설될 6.15공동선언지지연대조직에 의거하여 광범한 국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전개하여 반통일역적들의 범죄행위들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할 것이다. 반통일역적의 수괴 김영삼역도를 규탄하는 대중투쟁을 14시간이나 완강히 전개한 고대학생의 투쟁이야말로 널리 일반화되어야 할 가장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변혁구상과 세련된 영도가 있는 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드시 실현된다.

제아무리 내외의 반통일분자들이 미쳐날뛴다고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하에 통일의 대하로 나아가는 역사의 대세를 돌이킬 수는 없다.

모든 애국운동대오는 반통일세력과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분쇄하고 통일애국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두다 한몸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도록 하자!

모두다 반통일세력과의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분기하자!
반통일일당의 수괴 김영삼역도를 처단하자!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을 투쟁으로 진압하자!
반북반통일모략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자!
내외 반북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분쇄하자!
분파주의를 배격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하자!
범국민통일운동연대조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앞당기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주체 89년 12월 8일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을 처단하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성명(대변인 보도 2호)

오늘 한국에서 이회창이 자주민주통일 대세에 역행하는 최대원흉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는 한편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하루빨리 제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날을 따라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조국반도의 정세는 민족자주, 평화지향, 민족단합의 기치아래 전민족이 일심단결하며 자주민주통일의 한길로 전진하여 왔다.

그런데 천하역적 김영삼의 뒤를 이어 반통일수괴로 등장한 이회창은 자신의 추악한 매국파쇼적 본색을 드러내며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회창이야말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방해하는 희대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분자로서 6.15공동선언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우환단지, 악질종양이다.

이회창은 우선 이 땅을 미제국주의의 영구식민지로, 우리 민중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희대의 사대매국노이며 핵전쟁으로 민족공멸도 서슴지 않을 가장 악질적인 전쟁미치광이이다.

이회창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는가 하면 온 세계가 반대배격하는 미 부시정권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북강경정책을 적극 찬양하며 결국 조국반도의 정세를 완화와 평화가 아니라 긴장과 전쟁으로 충동질하고 있다.

이회창은 과거 전쟁미치광이 김영삼의 최측근 졸개시절부터 미제의 조종을 받으며 조국반도의 정세를 전쟁직전으로까지 몰고 갔던 극악한 호전분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미국독점자본의 경제신탁통치로 전락시키며 4천만 민중을 인간생지옥에 몰아넣은 악질적인 친미사대역적이다.

핏줄은 못 속인다고 일제시기 수많은 애국자들을 처형시킨 친일검사보의 아들, 이회창은 일본총리의 야스구스신사참배와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우리 민중의 정의로운 투쟁을 ≪한일관계발전에 저해를 준다≫고 매도하는 후안무치한 친일매국노이다.

이회창은 또한 이 땅을 민주주의의 불모지, 민중말살의 동토대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악질파쇼분자이다.

이회창은 이미 25살의 나이에 박정희군사깡패의 일급심복이 되어 역사상 최대 언론학살극인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처형사건의 판사노릇을 한 놈으로서 이후에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를 사형시킨 희대의 파쇼교형리이다.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위헌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는 내외의 한결같은 여론에 ≪국가보안법개정불가론≫으로 맞서는 파쇼광도, 경제신탁통치 하의 벼랑끝에서 사활적인 생존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을 모독하며 노동운동탄압을 부추기는 반동정치배도, 반동모략지 ≪조선일보≫를 ≪대쪽신문≫으로 비호하는 황당한 궤변론자도 바로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특히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조국통일대세를 거스르며 온갖 망동을 자행하고 있는 수괴급 반통일분자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보고 ≪결실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텔레비젼을 끄고 골방에서 손자와 화투를 쳤던 인간말종 이회창은 사사건건 놀부심보로 6.15공동선언실현을 훼방하며 온갖 망언, 망동을 저질러 왔다.

이회창은 남북교류협력에 장사꾼논리인 ≪상호주의론≫을 들이대는가 하면 미국무기상인에게 올해 80억달러나 퍼주었던 놈이면서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 값도 안되는 통일투자를 ≪퍼주기론≫으로 비방하는 궤변과 모략의 능수이다.

≪주한미군철수불가론≫과 ≪주적론≫, ≪자유민주주의체제통일론≫으로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며 제2의 6.25전쟁을 획책하는 반북호전분자도 바로 이회창이다.

결국 이회창이야말로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전쟁미치광이, 대권을 선사받는 댓가로 민족을 미일외세의 노예로 만들려하는 천하매국노, 이 땅을 민주주의의 암흑세계로 회귀시키려고 발광하는 파쇼분자, 온갖 망발과 협잡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사기꾼으로서 당장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할 역적 중의 역적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국민들속에서는 권력욕에 환장하여 조국반도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고가는 이회창을 처단하지 않는다면 민족공멸의 우환을 당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나라당내에서조차 이회창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정계퇴진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60여개 단체가 모인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이회창퇴진운동을 선언하는 마당에 민주노총과 한총련을 비롯한 변혁적인 대중단체들이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을 퇴진시키는 투쟁에 분기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절박하다.

반이회창투쟁은 대중투쟁의 선행공정인 대국민홍보활동, 반이회창선전전을 시작으로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동분쇄투쟁, 반조선일보투쟁과 밀접히 결부지어 이회창이 정계에서 축출되는 그 날까지 완강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기간 자주민주통일의 적으로서 오만가지 악행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오늘 부시정권의 특등사냥개, 반통일세력의 수괴질에 광분하는 이회창이 대중의 뭇매를 맞으며 처형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부시정권의 조종아래 반통일수괴로 나서며 자주민주통일대세에 역행하는 천하역적 이회창에 대한 정치적 처단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은 반드시 정의와 민중의 이름으로 처단되고 말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5일
서울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자

희대의 반통일분자 김영삼역도가 전민족적 단죄투쟁으로 정치적 불구가 반면 대통령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조건에서 극악한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가 반통일세력의 수급역적으로 나서고 있다

역대 군사깡패들과 김영삼역도의 졸개가 되어 못된 역적질만 배워온 이회창역도는 지금 고조되고 있는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기세를 꺾어보려고 온갖 반민족반통일망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정세는 감격적인 평양상봉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끼리 대단결하여 평화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전민족적 합의가 통일대하를 이루며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격동적인 국면이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 김영삼역적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은 미제국주의의 사주아래 한나라 패 당을 정치거점으로, ≪조선일보≫모략지를 선전거점으로 전쟁광기를 발산하며 연일 반통일행각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와 이회창패거리들과 같은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으로 인하여 현하 정세는 자주냐 예속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첨예하고도 엄중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회창역도는 먼저 미제호전광들의 정치나팔수, 미독점 자본의 현지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차기 대통령자리를 구걸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특급주구로서 김영삼역도를 찜쪄 먹을 친미사대역적이다.

부시정권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북강경책을 높이 찬양하고 대북호전망발을 연방 지껄여대는가 하면 미제의 경제신탁통치를 열렬히 옹호하며 노동운동탄압을 악질적으로 선동하는 등 상전의 환심을 얻어 차기 대권을 움켜쥐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천하의 매국역적이 바로 이회창역도이다.

또한 수급 반통일분자 이회창역도는 이북을 ≪주적 ≫으로 규정하거나 연방제를 반대하며 ≪흡수통일≫을 주장하는가 하면 ≪상호주의론≫니 ≪퍼주기론≫이니 ≪시기상조론≫이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전민족적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대세를 역전시키려 감히 망동하고 있다.

피는 못속인다고 일제 ≪치안유지법≫아래 친일검사보로 호의호식하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희대의 매국파쇼악법 ≪국가보안법≫철폐를 한사코 반대하며 수구보수세력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 놈도 바로 매국파쇼분자 이회창역도이다.

박정희군사깡패의 사법시녀가 되어 정의로운 ≪민족일보≫조용수사장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인간백정도 이회창역도이며, 반민족반통일매문지 ≪조선일보≫를 ≪대쪽신문≫으로 찬양하는 정치모리배도 이회창역도이며, 언론 학살의 장본인이면서도 ≪조선일보 ≫에 대한 정당한 세무비리조사에 ≪표현의 자유≫운운하는 황당한 궤변론자 역시 이회창역도이다.

김영삼역도의 충견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한편 끝내 경제신탁통치를 야기함으로써 이 땅을 천만노동자실업과 기하급수적 농가부채, 살인적인 가정파괴, 윤리파탄의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이회창역도야말로 국민심판대에 올려 세워 즉각 처단해야 마땅한 일급범죄자이다.

이회창역도는 지금도 현정권으로 하여금 친미 예 속 적이며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화하라고 충동질하며 이 땅을 민족반역의 동토대로, 민중말살의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키려 악랄하게 획 책하고 있다.

대통령자리에 환장하여 전민족을 핵전쟁의 불구름속으로 몰아가는 것도, 전민중을 민생파탄의 절벽으로 내모는 것도, 이땅을 미제국주의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며 영구분열을 획책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회창역도야 말로 가장 악질적인 민족반역자, 희대의 파쇼광, 특급반통일분자임에 틀림없다.

천심이나 다름없다는 민심은 이회창역도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본질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으며 단호하고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하고 있다. 이회창역도는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국민대중의 정의의 응징투쟁으로 인하여 고양이앞의 생쥐같은 초라한 몰 골로 꽁무니를 뺀적이 한 두번이 아니며 어느 대학, 어느 지역도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이다.

이회창역도의 반동적 궤변들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언론과 지식인들이 날을 따라 늘어가는 가운데 심지어 한나라당내에서조차 이회창역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며 분단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역대 파쇼독재자들의 하수인으로서 사대매국과 분열책동에 광분하며 민중생활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면서도 감히 반통일역적의 대표로 나서며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이회창역도와 같은 매국역적은 하

루빨리 정치무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미제국주의와 주한미군에 기생하고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김영삼역도에 기생하며, 반통일세력과 반공반북의식에 기생하고 ≪조선일보 ≫매문지와 지역감정에 기생하는 ≪인간회충≫이회창역도가 갈 곳이란 감옥이 아니면 무덤이다.

대권을 위해서라면 ≪총풍사건≫, ≪세풍사건≫도 서슴지 않으며 대가리에 기름이나쳐 바르 는 ≪지하철쇼≫로 여론조작이나 하는가 하면 군대면제 아들놈에게 최고급외 제차를 선물하고 일왕생일에 몰래 참석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인간추물 이회창역도는 당장 이땅에서 축출 되어야 한다.

우리 민중은 반이회창구호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대중투쟁으로 역적중의 역적, 추물중의 추물인 이회창역도를 반드시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 국민심판대에 올려세우고 말 것이다.

반이회창은 애국이요, 친이회창은 매국이며, 반이회창은 통일이요, 친이회창은 분열이다.

해방 직후 친일역적들을 단죄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던 ≪반민특위≫의 역사적을 계승한 우리 ≪반단특위 ≫는 미제국주의의 특급주구로, 국내 반통일세력의 최악질분자로 나서고 있는 극악한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를 단죄하는 투쟁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장을 볼 때 까지 완강히 전개할 것이다.

대세와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며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이회창역도가 정치무대에서 제 거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는 반드시 정의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될 것이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 미사일방어체계 찬양하는 친미주구 이회창역도를 처단하자!
경제신탁통치,민생파탄의 일급주범 이회창역도에게 감옥이 아니면 무덤을!
국가보안법개폐 반대하는 반민주반통일분자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자!
≪민족일보≫사장 사형시킨 박정희파쇼광의 사법시녀 이회창역도를 교수대로!
≪총풍≫사건,≪세풍≫사건 왠말이냐,부정비리범죄자 이회창역도를 철창으로!
반통일모략지 ≪조선일보≫와 한통속이다,정치모리배 이회창역도를 단죄하자!
동포보고 ≪주적≫운운하는 전쟁미치광이 이회창역도를 이 땅에서 축출하자!
≪상호주의론≫과 ≪퍼주기론≫,≪시기상조론≫은 망발이다,반통일궤변론자 이회창역도를 매장하자!
≪연방제≫만이 살길이다,≪흡수통일≫획책하는 반통일역적 이회창역도를 척결하자!
6.15선언실현 방해하는 반통일세력의 수급역적 이회창역도를 끝장내자!

반통일역적 단죄를 위한 특별위원회(반단특위)
2001년 8월 15일
서울





이회창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반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 주체 90년 6월 11～12일

사회자 : 오늘은 윤정원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반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어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먼저 이회창이 어떤 망발을 늘어놓았는지 그에 대해 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반통일분자로 낙인 되고 있는 이회창은요, 부시행정부내의 강경보수세력들이 떠드는 상호주의요, 투명성이요 하는 곡조를 그대로 되받아 외우다 못해 얼마전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와, 심지어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주적≫망발까지 서슴없이 늘어놓았어요. 또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6.15민족통일대토론회를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는 데 방해책동만 놀았어요.

사회자 : 네, 어떻습니까. 이회창의 망발을 보면 수구보수반동분자, 반통일분자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통일은 안중에 없이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는 이회창의 망발은 말이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정면도전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행위이며 민족의 이익에 상관없이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에 아부굴종하는 흉악한 친미사대매국행위라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4.8합의서가 발표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에 서서 시비질을 했구요,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반통일책동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4.8합의서가 발표된 때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비질을 했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내외에서 폭풍같은 지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는 남북공동선언의 ≪자주적통일부문≫이 주한미군의 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의 제동을 거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을 때에는 북에 끌려 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하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더 좋게 발전시키는데 방해되는 행동만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이 얼마나 못되게 행동을 했으면 국민들이 이회창을 민족의 족보에서 제명해야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회창과 같은 추악한 민족반역자, 반북반통일광신자들이 있는 한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전으로 돌아가 긴장이 격화되며 한반도의 정세가 첨예한 전쟁접경에로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봐요.

사회자 : 네, 국민들이 일치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통일의 걸림돌, 이회창과 같은 매국집단은 제때에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하죠.

윤정원 : 옳은 말씀이세요. 화근은 제때 제거하는 게 좋잖아요.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 미국상전에 아부하는 너절한 인간추물을 그대로 두면 통일을 이룩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회창을 정계에서 즉시 물러나게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해야합니다. 이회창이 총재로 있는 한나라당을 없애버려야 해요. 한나라당을 그냥 두면 통일에 방해만 되기 때문에 즉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회자 : 역사는 민의에 도전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파멸과 죽음뿐이였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각계애국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통일의 시비꾼, 방해꾼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죄악을 결산하고야 말겁니다. 이회창은 경고망동하지 말구요,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로 향한 민심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하죠. 후회는 벌써 때 늦은 법이예요. 그런만큼 이회창은 반통일분자의 죄명을 쓰고 국민의 심판대에 나서기 전에 지난날의 잘못들을 국민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역사와 민족앞에 더러운 오점을 남길 반통일행동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각계애국민중은 이회창을 비롯한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지상의 과제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해서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 줘야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민중이 단합을 해서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세배격과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의 통일방해책동을 걸음마다 분쇄시키는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일체의 행동을 용납하지 말아야하죠

사회자 : 지금까지 이회창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이 우리 민중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반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회창은 경고망동하지 말고 대세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걸 거듭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이 남북관계개선에 역행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 주체 90년 8월 2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나라당은 1일에 있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북을 일방적으로 지원만하는 정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이북은 남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최신형무기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느니 평화를 위한 군축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느니 뭐니 하며 상호주의를 제창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현시기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의 화해와 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또하나의 반통일적인 망언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웃간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입니다. 이로부터 이북은 지난 84년 우리가 대수재를 당했을때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5만석의 옥백미와 50만미터의 고급천, 10만톤의 시멘트 등 국제적십자구제운동사상 처음으로 되는 엄청난 양의 구호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때 이북의 지성어린 구호물자를 받아안고 북녘동포들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가슴 뜨겁게 느꼈으며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민족의 정을 다시한번 절감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북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남아돌아가서 보내준것도 아니며 또 그 무슨 댓가를 요구한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지원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며 각방으로 방해해 나서고 있으니 이야말로 의리도 없고 동포애의 정도 모르는 저열한 족속들의 비열한 망동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건 한나라당이 이북이 지원받은 돈으로 신형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건데요, 이거야말로 얼토당토 않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군비증강과 신형무기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북이 아니라 이남 당국자들입니다. 6.15공동선언이후에만도 이땅에서 그 전해보다 6.5%나 증가한 15조3,754억원의 국방예산이 발표되고 7천톤급 이지스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육군차세대공격헬기, 무인정찰기, 차기유도기 등을 도입하기로 한 ≪2001~2005년도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된 것은 물론 그것이 이미 실행단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10조2천억원어치의 최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기로하고 미국으로부터 스탠다드미사일발사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자료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사실을 전변하며 대북지원문제를 걸고든 것은 한나라당이 남북화해와 관계개선을 파탄시키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사업과 지원사업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건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상호주의와 군사문제까지 거들며 이를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분열과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반통일책동이 이회창의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다는 건 구태여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회창은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이와같은 논조를 계속 펴오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사업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반사실은 이회창을 두목으로 하는 한나라당보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금의 남북화해와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은 한나라당의 반민족반통일적 정체를 똑바로 가려보고 그들의 반북반통일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방해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 주체 90년 8월 15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북의 주장이 금강산육로관광계획이 무산위기에 처해졌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느니 정부는 이번 반대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계산하라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강산관광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것으로 된다느니, 이북에 지불하는 관광요금의 사용출처를 밝히라느니 뭐니하고 시비질하고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물꼬를 터놓은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원점으로 돌려세우려는 책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각계민중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명산이자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에 가볼 것을 희망해 왔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이북과 현대가 합의해 금강산관광의 길을 연후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금강산은 관광뿐 아니라 통일의 금강산으로 됐습니다. 여기서는 지난시기 남북노동자 5.1절통일대회와 6.15공동선언발표1주년기념민족통일대토론회,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이같이 금강산은 관광지로써 뿐 아니라 통일잔치를 베푸는 한마당으로써 의미가 큰 것으로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금강산을 가볼 것을 열렬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은 금강산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더러운 책동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산관광문제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해 앉으로 있을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해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으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같은 책동은 금강산에 가보기를 희망하고 있는 각계민중을 더욱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금강산관광뿐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협력 자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자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북의 군사력을 강화해줄수 있다느니 뭐니하면서 앞장에 서서 시비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경의선철도연결과 개성으로 가는 도로공사가 북의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의선철도공사기공식에 아예 얼굴조차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야당들도 많지만 한나라당과 같이 자기 민족문제, 특히 통일문제를 가지고 시비질하거나 방해책동을 하는 그런 야당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한나라당이야말로 금강산관광사업****하는 반민주, 반통일집단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한나라당과 이회창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도 개선할수 없고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걸 명심하고 한나라당 해체와 이회창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이회창을 퇴진시켜야 ***하고 남북공동선언이 착실히 이행될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각계 민중은 한나라당해체와 이회창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이 평양통일대축전방문단의 통일활동을 걸고든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25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회창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양통일대축전방문단의 활동에 대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느니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느니하면서 악의에 차서 시비질해 나섰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언행은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공적 진행으로 더욱 높아가고 있는 각계민중의 민족의 화해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떻게하나 남북관계를 대결원점으로 돌려세우려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언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새 세기의 첫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많은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참가해 통일문제를 논하는 역사적인 대회합이였습니다. 여기에 남측대표단이 대표자격으로 참가해 통일활동을 벌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전장소문제를 놓고 시비질하며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이 야말로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이 걸고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으로 말하면 말그대로 통일을 위한 탑이지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탑이 아닙니다.

또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말하면 남북이 확인하고 확약한 7.4남북성명과 6.15공동선언정신의 이념적 기초로 되고 있는 통일헌장으로써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족통일대축제를 온 민족이 공감하고 있는 통일헌장기념탑앞에서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태여 이회창의 시비를 가른다면 남측대표들은 그 무슨 장소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6.15공동선언실천으로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자는 이 하나의 일념을 안고 8.15평양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식에 참가했을 따름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적단합을 위해서도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이 당치않은 구실을 내걸고 방북단의 통일활동을 시비질하며 탄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회창패당이 만경대방명록과 백두산참관록 문제를 걸고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남, 북, 해외는 물론 수많은 외국인들까지 만경대나 백두산을 참관하고 커다란 감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자기들의 격동된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명소나 기념관같은 곳에 참관하고 그 감상을 적어넣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물며 세계적 위인으로 칭송받고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의 위인상이 깃들어 있는 만경대와 백두산 고향집을 참관하고 받은 커다란 충격을 피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로부터 지난시기 이북을 방문했던 이남의 정객들과 여러 인사들, 기업인들까지도 만경대와 백두산을 참관하고 위대한 주석님과 영도자님의 위인상을 높이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창패당이 유독 이번 8.15평양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의 만경대방문록과 백두산 참관록만을 문제시해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남북화해와 통일운동의 앞장에선 이들을 빌미로 삼아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려는 간악한 저의의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반통일분자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6.15공동선언도 순조롭게 이행될수 없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대화도 이루어질수 없으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통일도 이룰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민중은 이회창패당의 반민족, 반통일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하며 반이회창투쟁공세로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회창패당은 저들의 반통일책동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보법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반통일망언모음

남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질의서
한나라당 (2000. 4. 10)

향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겠지만, 만일 국가보안법의 사실상 폐지나 친북인사활동의 허용등을 시도할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으로서 탄핵대상이 될터인데 이에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이회창총재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나라당 (2000년 7월 6일)

대화와 협력 속에서도 우리의 안보는 튼튼해야 합니다. 확고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며, 효과적인 대북정책은 힘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안보태세가 급격히 이완되고 있는 현실은 실로 걱정스럽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대화와 협력도 설 땅이 없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도 만고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시대와 여건이 바뀌면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감내하면서 까지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원홍 한나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기에 앞서 남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한≪노동당 규약≫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최연희 의원대정부질문(사회 문화분야)

국가보안법 개정은 공감대 형성이 전제

최근 국가보안법을 신속히 폐지 내지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반대의견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법이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에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역시 6.15공동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황에 맞추어 북한을 보다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본 의원도 역시 그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우리의 현실은, 개정을 반대하면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당하고, 폐지 내지는 개정을 주장하면 친북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국론 분열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대표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직언을 하고, 재향군인회등 국가수호를 위해 몸 바친 많은 분들이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KAL기 폭파사건 유족들이 **김정일**위원장을 고발한 것만 보아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국민에게 국가안보의 상징성으로 각인되어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광원의원 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

이 나라에 간첩은 우글거리는 것 같은데, 김대중정권 출범이후 가끔 잡는 모양인데 공식발표가 없습니다.

그것도 **김정일** 눈치를 봐야합니까? 간첩은 있습니다. 이회창총재 비방 불온전단 살포사건, 북한의 민주화운동자들에게 난자된 쥐를 배달한 사건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잡습니까? 국정원과 경찰은 무엇합니까? 간첩은 있어도 잡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간첩잡아 고문했다고 기소 당하는 땅에서 누가 신고하고 누가 잡겠습니까?

조선일보 김대중칼럼 강성정치의 한계

안기부 돈의 선거유입과 관련한 야당 흔들기와 이회창 옥죄기, 의원 꿔주기를 통한 자민련 끌어안기, 평가가 상반되는 논쟁적 인물들의 입각, ≪DJ 1만달러 수수설≫과 관련한 검찰의 뒤집기, 언론사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 **김정일** 방한의 본격 추진과 국가보안법 개정, 전 유권자 10%의 민주당원화 등등— 이 모든 것은 김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강성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구체적 물증(?)들이다. 말하자면 ≪야당과 언론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다.

≪성명≫ 국가안보는 뒷전, 오직 남북문제의 정략적 이용 발상
한나라당 (2001. 2. 5)

국가보안법 개정 입장을 공식으로 밝힌 대통령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노동당 규약 개폐와 관계없이 개정의사를 밝힌 것은 또 한번의 만용이다. 특히 6월 **김정일**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북한 입맛맞추기로 본다.

남북관계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무장해제≫도 불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논평≫ 보안법개정이 대통령의 과시수단이 되어서야!
한나라당 (2001. 1. 14)

대통령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 이미지에 걸 맞추기 위해 억지 인권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단순히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무장 해제≫도 불사하겠단다. 남북관계를 조속히 진전시켜 보겠다는 ≪조급≫함과 내외에 업적 쌓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과시욕≫의 또 다른 표현이다.

≪보도자료≫ 재향군인회 원로 간담회 브리핑
한나라당 (2000. 12. 15)

재향군인회 원로들의 이회창총재 방문간담회 결과를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이 되어 상황이 변경될 때까지는 폐지나 개정돼서는 안되고 존치돼어야 한다. 북한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무장해제나 마찬가지다. 650만 재향군인들이 지지할테니 국가보안법폐지라는 당의 굳건한 입장을 견지해 달라.
한반도 관계는 이중 구조다. 한쪽에는 적성단체로서의 실체인 북한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평화통일 · 협력 · 대화상대로서의 북한이 있다. 모순되지만 인정해야할 현실이다. 적성단체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국방력이라는 힘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보도자료≫ 지도위원 · 당3역 연석회의 브리핑
한나라당 (2000. 12. 8)

≪지금도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성단체에 대한 보안법을 함부로 개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화공존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평화공존 때문에 적성단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사회의 이중적 구조 때문에 국보법의 완전한 개폐는 어렵다≫는 것이 요지였다.
현재로써는 국보법 개정 ·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보도자료≫ 국회의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2000. 11. 28)

보안법폐지문제와 관련하여 당 소속의원 몇 명이 당론과는 다른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우리당의 당론은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는 확실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논평≫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면합의설의 가시화
한나라당 (2000. 4. 21)

부인을 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자되고 있는 이면합의說 중의 일부가 가시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북한측이 주장해왔던 3가지 요구 즉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친북인사 활동허용≫ 등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성 명≫ 사전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라니...
한나라당 (2000. 4. 11)

≪사전조건을 북측이 걸지 않았다≫는 박지원, 박재규장관의 회견내용에 설득을 금치 못한다.
총선용으로 이용할 것이 뻔한 총선전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라는 선물을 호락호락 내줄 북한이 아니다.
≪하나를 주면 열을 내놓으라는 북한≫이다. 과거 어느때보다도 큰 댓가를 제공했으리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문제는 북한에 제공된 댓가와 선물의 실체다. 며칠전 북한외상이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철폐≫, ≪한미군사훈련 중지 및 주한미군 철수≫, ≪친북단체 활동보장≫을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
만약 이중 어느하나라도 양보했다면 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임을 분명히 한다.

주요정책현안(42)국가보안법 개폐
한나라당 정책문서

◯ 현 황
ㅇ 시민단체등의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ㅇ 김대중대통령은 기회 있을때 마다 국가보안법 개정 발언 특히 지난해 12. 4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이나 축구경기, 화해가 가능하겠는가≫ 지적하고 국보법 제2조 반국가단체 정의중 ≪정부참칭≫ 부분의 삭제를 강조
ㅇ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1. 4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필요를 제기
– 특히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 죄≫의 처벌범위는 불합리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 규약에 불충족함을 지적
◯ 문제점
ㅇ 국가안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먼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이 마련되어 법개정이 자연스럽게 논의되어야 마땅함에도
– 김대중대통령은 이를 거꾸로 진행시키고 있음.
– 국기 문제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위험한 처사임.
ㅇ 대북정책의 성과에 집착한 정략적 발상
ㅇ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굳이 지금 국보법의 개폐를 서둘러야 할 시기가 아님에도 국론을 분열
ㅇ 고무찬양죄를 모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선전선동을 합법화
◯ 대 책
ㅇ북한은 ≪안보위협≫과 ≪교류협력≫이라는 이중성을 가진 특수한 관계임.
–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하루아침 그 본질이 변화될 수 없을 것으로 봄
–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한 방편으로 하고
– 또 한편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유지하여 나아가 상호 신뢰회복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임.
ㅇ 인권침해 문제는 법 적용상의 문제임.
–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오 · 남용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 것임.
– 김대중대통령은 국보법의 개폐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 정권 들어서 저질러진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며
–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 전면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2001/07/09 (12:56)

이회창은 어떤 자인가

김대룡 / 구국전선 주체90년 8월 21일

민족반역자 이회창이 기회있을 적마다 ≪살아있는 양심≫이니, ≪움직이는 대쪽≫이니 하며 자화자찬하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없다.

일제앞잡이의 집안에서 태어나 오늘까지 이어온 그의 행적을 간추려보아도 양심이니 대쪽이니 하는 말이 당치도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애비 이홍규는 광복전 친일분자들만이 갈 수 있었던 도쿄제국대학을 나와 일제검찰기관에 복무하면서 반일애국투사들을 탄압하는데 적극 앞장섰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이회창은 1960년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자 마자 ≪민족일보≫ 조용수사장학살음모에 가담했다.

1961년 5.16박정희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이른바 ≪혁명재판소≫심판관이 되어 ≪법대로≫라는 명분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열망하는 수많은 애국인사, 청년학생들을 탄압처형하는데 앞장섰다.

그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전전하면서 자기의 사람잡이기질을 발휘했다.

대통령이 되어 보려는 야심을 품고 김영삼의 겨드랑이에 바싹 붙어 한나라당총재가 된 후 그의 민족반역적 행태는 더욱 극대화됐다.

≪앞으로는 박수받을 일 뿐아니라 안팎으로 욕먹을 일도 찾아서 하겠다≫고 기염을 토한 그는 실지 한나라당사에서, 국회회의장에서, 거리에서 때와 장소 가림없이 못된 일을 찾아서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전후로 그 수위를 넘어섰다.

남북최고위급회담에 관한 남북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을 선전용 캠페인이라느니,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느니 하며 회담의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모지름썼다.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데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반정신나간 그는 ≪김대통령이 합의한 연합제는 그의 개인적 안에 불과하다≫느니, ≪이번 회담에서 통일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말려든 것≫이라느니,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 연방제논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느니 하며 입에서 구렝이가 나가는지 도깨비가 나가는지 모르고 헤등거렸다.

6.15공동선언이야말로 민족의 통일로에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온 역사적 선언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환영한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심술을 부리는 이회창은 분명 한민족이기를 그만둔 인간쓰레기이다.

이회창은 이런 자이기에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민중의 투쟁도 체제전복을 위한 친북행위로,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도 사회주의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대의 오물인 ≪보안법≫철폐를 극력 반대하면서 이북이 ≪주적≫이라는 망발만 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통일후에도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미국무기구매와 미사일방위전략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의 환심을 얻어 대통령벙거지를 써보려는 이회창의 친미사대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몇가지 실례만으로도 이회창이 어떤 자인가를 평하기에는 충분하다.

한마디로 이회창은 한국의 암이요, 민족의 오물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걸림돌이며 친미사대분자, 민족의 원수인 이회창을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각계각층 애국민중은 이회창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영영 매장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이회창은 현대판 놀부

지식인 이경수씨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7월 30일~8월 2일

지금 온 겨레는 8.15광복절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앞당겨올 결의를 제삼 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 내부에는 높아지는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반북대결을 고취하는 반역자가 있다. 그가 바로 반통일수구세력의 두목인 이회창이다.

그는 신통히도 구전소설에 나오는 놀부를 방불케한다. 놀부가 남이 잘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패덕한이라는 것은 초등학교학생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이땅에도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진 인간추물이 있으니 그자야말로 현대판 놀부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회창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심술보따리를 펼쳐놓는 놀부의 본을 그대로 따고 있다. 온 민족에게 통일의 봄소식으로 전해진 4.8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 드러난 그의 작태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것이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4.8합의서 채택은 온 겨레에게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기쁨과 환희를 안겨준 민족사적 쾌거였다. 온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언론들은 평화정착의 발판, 민족통일염원의 결실로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만은 식혜먹은 고양이상을 해가지고 속뒤틀린 소리를 해댔다.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 ≪결실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악의에 찬 선고를 늘어놓았다. 남북대화에 대한 8개항의 원칙이라는 것까지 내흔들며 4.8합의서를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발광했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하지만 개가 짖는다고 달리던 열차가 멈춰서랴. 세계적인 관심과 기대속에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막은 올랐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수뇌의 극적인 만남. TV에 펼쳐진 꿈같은 광경앞에서 사람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역사적인 2박3일간을 평양시간에 맞추며 TV앞을 떠나지 못했다. 그런데 현대판 놀부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온 겨레, 아니 온 지구촌이 역사적인 평양상봉장면들을 보며 열광할 때 이회창은 TV를 등지고 앉아 손자와 화투놀이를 했다.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의 심술은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후 더욱 광기를 띠였다. 민족분단사에 종지부를 찍을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를 받아안은 겨레의 감격과 기쁨이 하늘에 닿고 지지환영의 함성으로 천지가 들썩하고 온 세계가 끓고 있을 때, 이회창은 불맞은 황소처럼 질겁했다. 분단구조속에서 부귀권세를 꿈꾸는 반역자인 그에게 있어서 6.15공동선언은 심장에 박힌 비수였고 사형선고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이성마저 잃고 6.15공동선언을 미친 듯이 헐뜯었다.

이회창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은 북의 적화통일의도를 받아들인 것이고 한미관계에 손상을 준다면서 주한미군철수불가와 통일후 미군영구주둔을 외쳐댔다. 연방, 연합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현실성이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나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연방제안을 수용할수 없다고 앙탈을 부렸다.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외쳤고 비전향장기수북송을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짜를 썼다.

정말 제동생이 구원의 박씨로 잘살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흥부의 집으로 달려가 방바닥에 가래침을 마구 뱉고 장판을 칼로 찢으며 밥상을 발길로 차 그릇을 깨던 놀부의 그 추악한 행위 그대로이다.

6.15공동선언이 실행단계에 들어가 남북관계에서 긍정적변화들이 일어나자 현대판 놀부의 심술은 극으로 치달았다. 이회창은 군부의 우익보수파들과 함께 북을 없애버려야 할 주적이라고 악을 쓰며 남북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은 북의 체제강화에 도움을 준다,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이다, 한국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면서 남북신뢰와 화합의 장에 재를 뿌렸다. 그뿐인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온 겨레의 축복을 받으며 북행길에 오르자 이회창패당은 도로를 가로막고 차를 멈춰 세우는 망동까지 부렸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길을 넓히는 뜻깊은 행사가 벌어질때면 멀찌이 지방으로 도망가서 딴장을 보는 청개구리짓을 했고 경의선복원공사 기공식때에는 남침통로가 개설된다고 야단법석했다. 못된 개 짖을데 가서 안짖고 장마당에 가서 짖으며 행인만 문다는 격이라 하겠다.

이회창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부시정권이 들어서자 마치 구세주나 만난 듯이 아양을 떨며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해보려고 갖은 못된 짓을 다하고 있다. 미국정계에서까지 한반도에 조성된 화해와 평화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대착오적행위라고 규탄배격하고 있는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을 이회창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회창은 한반도를 또다시 핵전쟁의 발화점, 세계냉전의 열핵지대로 만들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절대찬성해 나서고 있다. 요즘에 와서는 경수로협상에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떠드는 상전의 곡조를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운다.

현대가 추진하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정경유착의 표본이요, 국민혈세의 탕진이요하며 생트집을 잡아 헐뜯는가 하면 북에서 내놓은 6.15민족통일대토론회의 제안마저 통일전선전략을 운운하며 무턱대고 반대했다. 친미사대가 골수에 찬 정신병자의 망동이라 하겠다.

원래 이회창은 미국의 품에서 자라 숭미반공으로 연명해온 사대부이다. 그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광신자가 되었다. 반공의 일선에서 악명을 떨쳤다. 그는 25살의 나이에 벌써 진보적언론인이었던 민족일보사장 조용수씨를 사형시킨 것을 비롯해서 역대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파쇼악법에 걸어 처형했다. 정말 이회창 현대판 놀부야말로 심술보에 역적보 하나가 더붙어 오장팔부를 가진 기형아이다.

6.15공동선언에 천명된대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민족의 일치한 지향이고 거스를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를 거역하고 민족의 통일의지에 역행하는 것은 굴러오는 수레를 멈춰 세우겠다고 버티선 어리석고 미련한 사마귀꼴이다. 통일의 태양을 모시고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자주통일의 레로를 따라 질풍처럼 내닫는 무쇠철마를 분단수구사마귀가 어찌 가로막을수 있으랴.

세차게 굽이치는 겨레의 자주통일대흐름을 되돌려보려는 시대의 추물인 현대판 놀부 이회창. 그가 갈길은 과연 어디인가. 세상에 고약하고 못된 짓만 하다가 재물도 집도 다잃고 쫄딱 망해버린 구전문학속의 놀부가 간 파멸의 길뿐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공동의 신성한 통일법전이다. 공동선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우리 국민과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에 칼질을 하고 그 이행에 훼방을 놀고 있는 현대판 놀부 이회창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며 자주통일의 거세찬 격랑으로 그를 역사의 시궁창에 영영 매장해버릴 것이다.

이회창을 매장해야한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7일~8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온민족의 통일열기는 전례없이 가열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 민중들도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의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수구세력들이 우리 민족의 이같은 통일운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걸 가로막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엔 바로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서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시기하기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난 이회창은 오늘 차기 대권을 장악할 꿈을 안고 악질적인 야심가, 특등 사대매국노로써의 본색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극악한 사대매국노, 반인류, 반통일적인 정체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그 이행을 차단하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에 찬성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이회창은 남북정상회담개최와 관련한 ≪4.8합의서≫가 채택되자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며 그것을 기를 쓰고 반대했고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에 따라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자 그걸 더욱 악의에 차서 공동선언을 헐뜯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공동선언의 확약을 북의 적화통일의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미관계에 손상을 준다≫며 시비했고 연방연합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방제안을 수용할수 없다고 앙탈을 부렸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외쳐대면서 비전향장기수 북송은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와 연계돼야한다고 앙탈을 부렸습니다.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은 ≪북의 체제강화에 도움을 준다≫,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이라면서 그것을 반대했는가하면 비전향장기수들이 온겨레의 축복을 받으며 북행길에 오르자 패당을 내몰아 도로를 가로막고 차를 멈춰세우는 망동까지 부렸습니다. 그는 우리 겨레가 모두 중요한 통일작업의 하나라면서 지지찬동한 경의선복원공사기공식때에는 ≪북의 남침통로가 열린다≫고 야단법석대면서 아예 기공식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으며 중요한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정경유착의 표본이다≫, ≪국민혈세를 탕진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회창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크게 과시하고 겨레의 통일열의를 크게 북돋아 준 금강산 6.15민족통일대토론회와 남북노동자, 농민통일대축제행사들까지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놀아나는 행사≫라며 반대해 국민들로부터 응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이회창은 통일을 반대할뿐 아니라 우리 남북민중들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덧씌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전쟁의 방법≫으로 북을 제압해야한다며 공공연히 전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북주적론≫을 펴고 있는 이회창은 군비를 늘리고 전력을 증강할 것을 주장하면서 휴전선에까지 나타나 국군장병들에게 반북전쟁열을 고취했으며 세계가 다 반대하는 부시미행정부의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지지하고 한반도를 그 일차적인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미국호전집단의 범죄적 기도마저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이회창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극악한 호전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회창은 이땅을 계속 외세의 강점과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특등 사대매국노, 역적입니다. 그는 이땅을 반세기 이상이나 불법강점하고 우리 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어대고 있는가하면 미군의 양민학살진상규명과 매향리사격장폐쇄 등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뿐 아니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일본우익집단의 역사교과서왜곡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일투쟁마저 ≪자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반대하면서 우리 민중에게 파쇼독재를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당한 구실을 붙이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파쇼악법들의 철폐와 국정원 등 폭압기구들의 해체를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언론의 민주화와 언론사세무조사마저 당치않게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느니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느니 하며 반대해 사회의 응당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민주권리와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마저 시비하면서 정부가 그에 ≪강경대응≫해야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사생활에서도 너절한 인간입니다. 정치인은 사생활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청렴결백을 염불처럼 외우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정착복해 국내외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사두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부정부패는 최근 2억원을 들여 시골에 있는 자기 부친이 살던 주택까지 소유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야말로 극악한 사대매국노, 반민주, 반통일역적입니다. 이회창은 정권을 잡은 부시미국공화당의 지원을 받아 차기 대선에서 기선을 잡고 권좌에 앉아 이땅을 더욱 민주부재, 민권부재, 생존권 부재의 암흑의 나락으로 밀어넣으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야말로 우리 국민과 민족의 우환단지입니다.

이회창을 정계에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중이 그처럼 바라며 투쟁하는 민주민권도 생존권도 보장될수 없고 꿈에도 소원인 조국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며 우리 남북민중이 무서운 핵참화를 입게 될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여기에 이회창을 정계에서 매장해야할 이유와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문하고 반이회창기치를 높이 들고 그를 정계에서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것입니다. 각계 국민들과 언론매체들은 이회창의 반역적 정체와 그가 저지른 죄악들을 낱낱이 폭로단죄하고 그를 배척, 고립시켜 더이상 우리 민중과 민족이 화를 입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회창의 사실상 사당으로 되고 있는 한나라당 수족들인 한나라당내 그의 심복들과 하수인들의 범죄행위를 폭로단죄함으로써 이회창의 손을 잘라버리고 그가 다시는 국민을 기만우롱하며 진실을 감추지못하게 해야합니다.

국회에서 반이회창 불길을 지펴올립시다.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벌입시다.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

유영근 / 구국전선 주체90년 9월 11일

지난 주말 나는 서울 세종로 귀거래다방에 들렸다가 서울법대 여러 동기생들인 변호사, 교수들을 만났다.

우리는 그동안의 회포, 동기생들의 소식을 화제에 올렸는데 자연히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에 대한 얘기가 화제의 중심이 됐다. 출생, 대학생활로부터 법관시절, 정치무대에 등장한후 특히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전후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얘기됐는데 그것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박모변호사

요즘 이회창은 일신의 권세욕에만 집착한 나머지 인간자체가 변질되고 민족도 모르는 정치추물로 돼버렸다.

정가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한변협 결의문사건만 봐도 그렇다. 대한변협회원들도 전혀 모르게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대한변협 전회장 이세중을 비롯해 황모, 진모 등 경기고 동창생 변호사들을 매수해 허위날조된 결의문을 조작케하고 한나라당이 그것을 들고 현정권의 개혁정책을 덮어놓고 비방중상하는 비열하고 간악한 수법을 쓰고 있다. 차기 대선을 향한 이회창의 더러운 모략극이라고 정가에서 모두 이회창에게 침을 뱉고 증오하고 있다.

△ 김모변호사

최근 신문에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의 친일반역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회창은 가정환경부터가 문제다. 뿌리부터가 썩어있다.

이회창은 대학입학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출생지, 고향을 속이고 있다. 이회창은 원래 이북 황해도 서흥에서 출생했는데 대학입학서류에서부터 출생지와 고향을 서울이라고 속이고 변신했다.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선조의 뼈가 묻혀있는 출생지 고향을 속인다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속이는 것으로 짐승만도 못한 짓이고 장차 비인간, 반사회적 악한으로 변질될 수 있는 악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일제시기 그의 아버지 이홍규가 조선인임을 속이고 일본인 행세를 했고 이회창이 1969년 당시 미국유학시절 학생들 속에서 자기가 ≪코리언≫임을 숨기고 미국시민행세를 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이기욕, 부귀영화만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변신의 권모술수로 반역에 반역을, 매국에 매국을 덧쌓을 수 있다는 무서운 성향을 말해 주고 있다.

△ 양모변호사

이회창이 자기의 출생지와 고향을 속인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일제시기 그의 아버지 이홍규가 황해도 일제 검찰청 서기로 있었는데 애국독립운동가들을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하게 심문, 고문했는지 한방에 있던 일본인 검사들도 낯을 붉히며 머리를 돌렸다. 또 실제 그의 심문, 고문과정에 수많은 애국독립운동가들이 불구가 되고 죽어갔다. 그래서 황해도 지방사람들이 이홍규를 때려죽이려고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그의 집에 습격을 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불안, 공포증을 느낀 이홍규는 2살난 이회창과 가족을 데리고 한밤중에 황해도를 탈출, 충청도 예산으로 도망, 거기서 정착하게 됐다. 그러니 천인공노할 민족반역의 대죄를 짓고 고향을 탈출해 숨어살아온 이회창과 그의 아버지 이홍규가 어찌 떳떳이 자기의 출생지와 고향이 황해도 서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서모교수

이회창가정에서의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는 은폐된 민족반역의 체질이다.

원래 외세의 지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국적 상황에서는 일신의 권세와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외세에 빌붙게 되고 민족을 배반하게 된다.

일제시기 친일반역행위를 한 이홍규는 일제가 망하고 8.15광복이 되자 재빨리 친미로 변신, 미군정청 전남검찰청 검사로 되어 또다시 애국통일운동인사들을 학살하는데 나섰다.

이홍규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있을 때 현장체포, 구속되는 검찰역사상 보기드문 사건이 발생했다. 이홍규검사의 죄명은 ≪수사기록 허위날조≫,≪강박에 의한 간첩조작≫이었다. 이것은 이홍규가 공안검사로 얼마나 악독하고 야수적으로 무고한 주민, 애국인사들을 간첩으로 조작, 학살했는가를 웅변해 주고 있다.

△ 이모변호사

아버지 이홍규의 그런 체질을 이어받은 이회창의 본성은 이미 대학시절부터 나타났다.

출세의 유일한 길이 고등고시합격이라고 생각했던 이회창은 그 고시합격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대학 2학년에 올라가자 청주중학 동창생인 신모학생에게 하숙비를 대주는 대가로 ≪학교출석 대리사인≫을 시켜놓고 충남 예산 수덕사 절간에 들어가 4학년 고등고시에 응시할 때까지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그가 산속 절간에 들어가 공부한 것이란 고등고시과목 5가지 책만 기계적으로 암송한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암기한 법학지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경성법전 동창생인 김모씨 고등고시위원을 막대한 돈으로 매수하여 몇백명을 합격시킨 고등고시역사상 가장 저질인 제8회 사법과에 부정합격했다.

학문탐구, 인격도야하는 곳이 대학일진데 이회창은 대학졸업자라고 하지만 대학간판을 도용한 것으로 된다.

또한 대학재학기간 징집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군입대문제가 생겼다. 개인이기에 약삭빠른 이회창은 재빨리 병무청관계 공무원을 매수, 6.25전쟁시기 포항에서 모집된 학도병 명단에 불법삽입, 가짜 제대증을 만들어 대학 4년을 무사히 졸업했다.

이회창은 이미 대학시절에 외세 친미사상이 골수에 박혀있었다.

대학졸업할 무렵 미잉여농산물 유입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각지 농민들의 반미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서울대학 대강당에

서는 미잉여농산물문제에 대한 성토대회가 있었다. 성토에 나선 이회창은 ≪우리 국민에 있어서 미국이 보내온 잉여농산물은 산타클로스가 보내는 선물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구세주이고 도대체 미국을 떠난 한국의 존재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해 온 장내를 분노케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농민들의 뭇매를 맞고 빽소니를 치고 말았다.

배달민족의 피와 양심이란 눈꼽만치도 없는 친일악질지주 이홍규의 아들다운 모습이었다.

△ 김모변호사

외세와 불의에 빌붙어 일신의 권세만을 추구하는 이회창의 체질은 그의 법관생활과정에 더욱 악성화됐다.

이회창은 5.16쿠데타와 함께 서울시지법판사에서 군사혁명재판소 재판관으로 발탁됐다.

진보적 애국인사들은 물론 무고한 각계층 민중들을 마구 잡아다가 감옥도 모자라 서울시청 앞 덕수궁안이 넘쳐나도록 가두어놓고 살벌한 군사재판을 벌일 때 이회창은 때를 만난듯 소정의 재판절차도 없이 마구 고문학살했다.

≪민족시보≫사장 조용수씨도 바로 이때 이회창재판관에 의해 억울하게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됐다.

박정희가 사살되고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해 전두환 신군부독재정권이 등장하게 되자 이회창은 재빨리 신군부정권에 붙어 대법원 판사겸 대법원행정처 기획실장이라는 사법부의 실권적 핵심부에 들어앉게 됐다.

이회창은 신군부정권의 모든 재판권을 좌지우지하면서 광주사태이후 고조되는 반미자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통일세력들을 원천적으로 색출, 재판처형하는데 큰 죄악의 ≪공적≫을 세웠다.

△ 김모변호사

이회창은 변질되고 썩은 자기의 인간성을 ≪대쪽≫으로 은폐하려하고 있다.

이회창은 야당총재로 밤마다 재벌들을 만나 차기 대권을 잡으면 구조조정된 업종를 원상복귀시켜 주고 금융특혜를 주겠다는 등 비열한 사기협잡, 공갈의 방법으로 막대한 부정축재를 하고 있다.

시골에 있는 이미 죽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2억원씩이나 들여 호화주택으로 개축하는 것도 바로 부정축재한 그 더러운 돈으로 하고 있다.

또 남의 자식들은 다 군대에 나가는데 자기 자식들은 전부 병무당국에 막대한 뇌물을 주고 허약자로 만들어 병역징집을 불법, 면제시켰을 뿐아니라 부정축재한 돈으로 미국으로 빼돌려 호화부패생활을 시키고 있는 것이 이회창이다. 이회창이 대쪽이라면 뿌리까지 썩고 병든 대쪽이다.

△ 박모변호사

인간자체가 변질되고 썩은 정치인은 정치에서 민중, 민족을 등지고 반역의 길로 나가기 마련이다.

지난해 4월 4.8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 이회창의 얼굴은 숯덩이가 되고 절망에 빠졌다.

남북의 두 정상이 상봉하게 되면 분단과 대결, 전쟁위험 등 불의하고 구시대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자주와 통일을 안아올 것은 누구보다도 이회창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회창은 ≪조선일보≫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민들 속에 비등하는 4.8합의서에 대한 기대를 깨고 남북정상들의 상봉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바로 그 이튿날 ≪조선일보≫조간에는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결실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이회창의 발언기사가 대서특필됐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도 있지만 이회창과 우익수구세력,≪조선일보≫와 같은 민족반역언론이 거품을 내며 짖어댔어도 역사적인 평양상봉은 이루어졌고 반세기이상 걸친 외세의 지배와 민족분단을 끝장내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안아올 위대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발표됐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세계가 진심으로 환영했다. 오직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만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TV에 등을 돌려대고 손자와 화투놀이를 했다.

실로 6.15남북공동선언은 이회창에게 있어서 심장에 박힌 비수였다. 이회창은 ≪적화통일의도를 받아들인 것≫,≪현실성이 없다≫등 ≪조선일보≫를 통해 계속 발광적으로 짖어댔다.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의 화해와 교류 등 그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나가자 이회창은 더욱 이성을 잃고 발광적으로 ≪일방적 퍼주기식 지원이다≫,≪국민혈세 탕진이다≫,≪남침통로가 개설된다≫고 절망적인 비명을 올렸다.

△ 서모교수

절망에 빠진 이회창에게 캄파주사를 놔준 것은 새로 등장한 보수호전분자인 부시 미행정부였다.

이회창의 본질적 체질은 외세에 붙어 기생하는 것, 외세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지난해 12월 미국대통령선거결과를 가슴조이며 지켜보고 있던 이회창은 부시의 대통령당선확정이 발표되자 환성을 올리며 구세주를 만난듯, 죽은 아버지가 살아온듯 미친듯이 기뻐했다. 친일주구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가 8.15일제패망소식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가 미군의 인천상륙소식을 듣고 미친듯이 인천항으로 달려가 환성을 올리며 미군을 환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이회창은 이미 부시가 미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자 한나라당 측근 인물들로 부시당선지원단을 만들어 엄청난 달러보따리를 들려 미국에 보냈다. 그 지원단은 미국에 가서 공화당 정계인물들, 캘리포니아대 동창생 인맥들을 만나 막대한 달러를 뿌리며 부시당선운동을 지원했다.

이회창은 바로 부시행정부에 매달려 대북강경, 신냉전,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걸음마다 저지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발악적으로 방해하며 거기에서 자신의 유일한 생존, 권세의 길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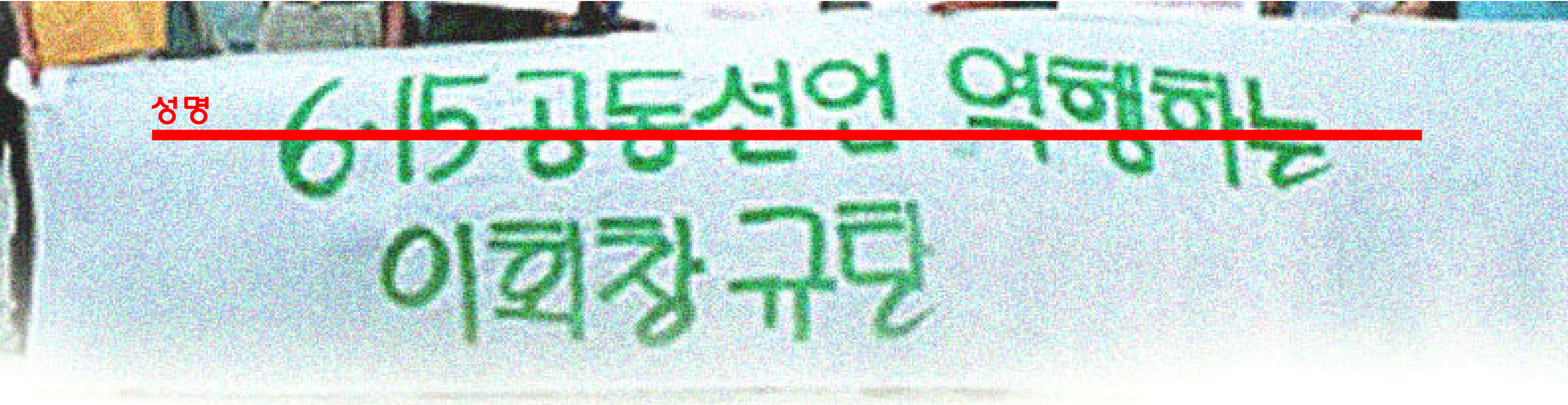
* * *

대학동기생들의 이회창에 대한 시각과 얘기는 실로 날카롭고 정확하며 정의로웠다. 그들은 체험을 통해 이회창의 변질되고 썩은 인간성, 외세에 빌붙어 일신의 권세를 누리려는 반민족적 체질을 정확히 파헤쳤다.

이회창은 실로 인간악의 화신이며 외세의존, 민족반역의 화신이다.

그런 이회창이 한나라당 총재로 가증스럽게도 차기 대권을 망상하며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 민중은 이회창을 하루속히 정계에서 축출하고 사회에서 영영 매장해버려야 한다. 이것이 그날 귀거래다방에서 우리 대학동기생들이 이회창에 대한 화제를 마치며 내린 일치한 결론이었다.



한나라당의
남측대표 사법처리제기 비난

민족통일촉진운동 북측준비위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의 ≪한나라당≫안의 일부 반통일세력들이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행사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고 여기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북남대결에로 몰아 가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19일 담화를 발표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새 세기 첫해의 광복절에 평양에서 분렬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해외 1,000여명의 대표들이한 자리에 모여 진행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위업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하고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용기,희망과 락관을 안겨 준 의의 깊은 통일대회합이였다.

7천만 온 겨레는 지금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의 마감을 장식하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한결같이 기뻐 하면서 이번 대축전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촉진되고 북남관계가 더욱 좋게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한나라당≫안의 일부 반통일세력들은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행사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고 여기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북남대결에로 몰아 가고 있다.

진실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관심이 있다면 북에서 진행한 민족통일대축전개막행사를 참관한데 대해 문제시할 아무런 리유도 없으며 금번 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의 ≪사법처리≫문제같은것은 애당초 제기 될수도 없다.

만일 통일을 념원하는 행사가 북에서 치르어 졌다고 문제시 하고 행사에 참가하여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보는것조차 무서워 한다면 ≪한나라당≫이 도대체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며 통일을 위한 대화나 접촉은 어떻게 하자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민족최대의 과업인 통일문제해결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당리당략만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들의 반통일대결책동은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리행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안에서 울려 나오는 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발언들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통일문제에 개입할 명분을 부정하고 그들자체가 우리와 북남관계문제를 론의할 상대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것으로 되며 나아가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기의 정체와 본색을 내외에 그대로 드러내 놓는것으로 될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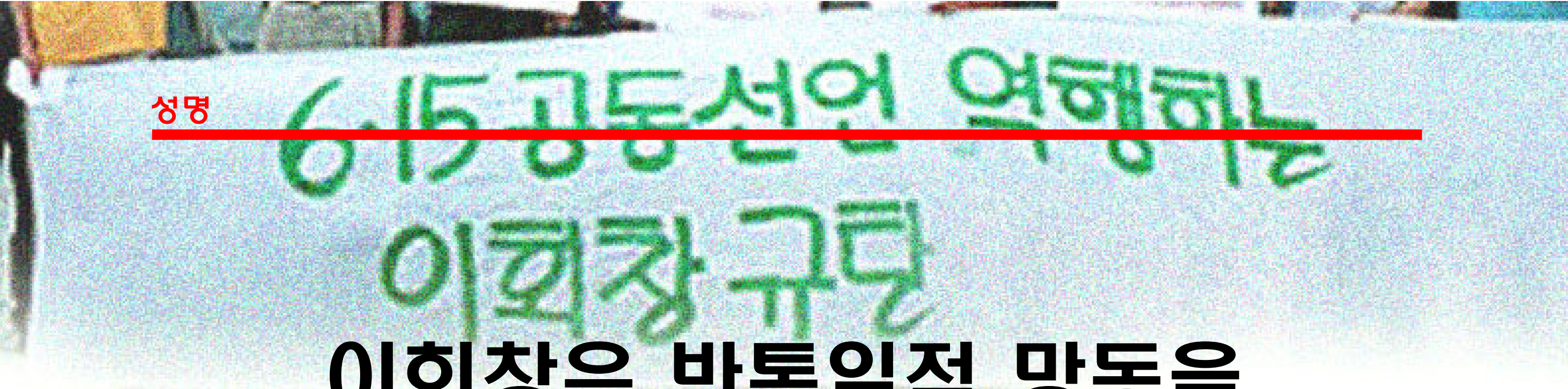
국토가 량단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북과 남의 그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분렬의 비극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조국통일에 관심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북에서 진행하는 통일행사를 보는것 조차 두려워 하면서 반북대결적으로 나간다면 우리와의 접촉의 대상으로도,대화의 상대로도 되지 않는다는것을 그들 스스로가 드러내 놓는것으로 된다.

≪한나라당≫은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바로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성명



이회창은 반통일적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들의 불신은 하늘에 닿고 있는 때에 한나라당의 당수라고 하는 이회창총재의 반민족 반통일적 행각은 국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회창총재는 최근들어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을 계기로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나서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서로 지혜를 모아 통일을 향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615남북공동선언≫ 한 돌을 계기로 제안된 ≪민족통일대토론회≫도 ≪남남갈등≫을 조장한다며 한사코 반대해 나서고 있다.

사실 이회창총재의 이러한 반통일적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한 4.8합의서가 발표됐을 때도 ≪정상회담은 시기상조≫이고 ≪북에가야 얻어올게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극악한 반통일인사인 이회창은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 후에도 여러방면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자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준다≫며 어떻게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으려고 한사코 시비를 놓았다.

이회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통일이란게 어떤건지 알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필수적≫, ≪무조건적인 북한 지원은 북한 같은 폐쇄?억압체제를 연장만 해줄 뿐≫이라는 등의 발언을 놓고 보면 결국에 북한이 망하는 길 밖엔 다른 길이 없고, 통일을 위해선 결국 북한을 무력이나 고립압살로 굴복시켜야 한다는 말인 것이다. 이렇게 민족끼리의 대결과 반목만을 부추기는 사람이 나라의 가장 큰정당의 당수이니, 어떻게 전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통일을 위한 논의의 길도 막히고 단순히 무역을 위한 상선의 침범도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가도 남과 북의 긴장을 해소하고 우리민족끼리 열어갈 평화통일은 신기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회창이 말하는 남남갈등이란 결국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반통일 모리배들과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과의 갈등일 뿐이다. 이회창은 지금 좋게 발전하는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아니꼬운 눈으로 흘겨보며 방해해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제 집에서 조용히 손주들 엉덩이나 두들겨주며 여생을 편히 지냈으면 한다.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훼방을 놓는다면, 타오르는 국민들의 통일염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친일의 피가 흐르는 이회창

이회창의 아버지는 일제 때 검사보를 지낸 친일 앞잡이다. 이회창의 아버지가 근무했던 당시에 독립운동하던 우리 선조들 잡아가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의 국가보안법의 전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해방 뒤 친일세력들이 다시 득세하여 아직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회창의 아버지 역시 해방이후 이런식으로 또다시 검사가 된 것이다. 이회창이 지금의 법조계에서 출세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검사인 친일파 아버지를 둔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온 국민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하고 있다. 200여개단체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법학교수의 99프로와 심지어 미국마저도 개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간의 협력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이회창은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이회창이 개정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를 서두에서 간단하게 살펴 본 그의 아버지 친일경력 즉, 지금의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을 유지하는 일제 앞잡이 검사보를 지내며 출세를 한 것을 이회창이 그대로 본받은 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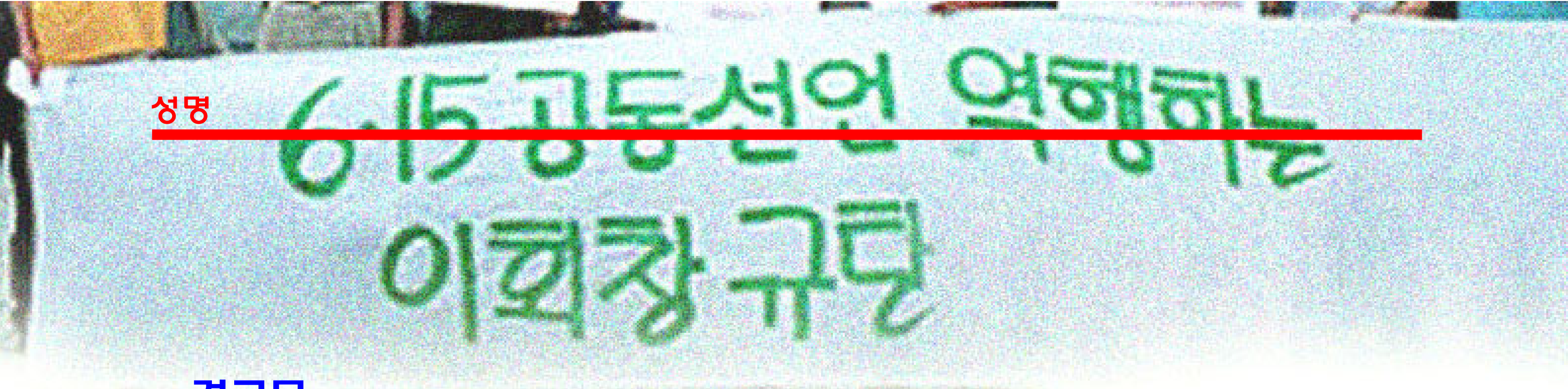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말이 너무도 잘들어 맞는다. 아버지가 친일행위로 악법을 이용해 독립투사들을 탄압했던 것처럼, 이회창도 사사건건 나라의 통일을 훼방놓으며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 통일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매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가 이 나라 대권을 잡으려고 안달을 하고 있으니 어찌 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회창은 국가보안법만 있다면, 만에 하나 자신이 집권하게 할 경우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무기로 하여 ≪무한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을 걷어치우던가 아니면 조용히 정계에서 은퇴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이다.

건국대생들에게 쫓겨난 이회창

지난 4월 22일 건국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었던 이회창이 정문에서 학생들이 출입을 가로막아 특강을 하지 못한체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은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이회창을 학교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며 구호를 외치며 이회창일행을 내쫒았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이회창이 했던 정치행각을 보았을 때 당연한 일입니다. 이회창이 각종개혁법안을 가로막고 당리당략에 눈이멀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사사건건 남북간의 대결과 불신을 고취하여 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은 장본인인 것은 세인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명색이 야당총재라는 사람이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무슨 체면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이회창은 건대학생들의 출입저지가 바로 민심을 대변한 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입니다.

민족 고려대학교 반통일세력 단죄규탄 투쟁위원회
2001/06/12



경고문

이회창의 대전강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회창의 대전에서의 강연을 용납할 수 없다

8월 8일 이회창이 대전에 온다는 비보를 접하고 대전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착찹한 마음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게릴라성 폭우로 모든 국민이 비피해로 근심걱정이 쌓여가고 있는 지금!

마치 게릴라처럼!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대전에 들어와 강연을 한다는 이야기에 낯짝도 그만하면 철갑선을 만들만큼 두껍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 입에서 무슨 도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다고 거창하게 강연인가!

입만 열면 반통일적 발언! 입만 열면 반교육적 발언! 입만 열면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 불타 입만 열면 반민주적 발언! 입만 열면 이리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인면수심의 발언을 일삼는 그에게 4천만 국민은 등을 돌린 지 오래이다.

김영삼과 더불어 국민을 상대로 희대의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는 그에게 4천만 국민이 등돌린 것도 모자라 7천만 겨레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남과 북이 서로 거족적인 민족공동통일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려 하고 있으며 남쪽에서는 정부, 정당, 진보적 운동단체와 종교단체를 비롯 온갖 사회단체가 망라되어 통일축전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심은 이렇게 향해 가는데 반통일적 발언만을 일삼는 백발마귀 이회창은 여전히 북을 동포로 생각지 아니하고 주적으로 여기며 온갖 방해 책동을 일삼고 있다.

온 국민이 조선일보의 반통일, 반민주, 정권과 재벌에 나팔수로의 역할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 수구보수 언론을 비호하며 언론탄압이라며 여당공격의 빌미로 삼아 자신의 정권쟁취의 수단으로 삼으로려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내민족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이회창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뺏지의 의미일텐데 민족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이회창! 그의 모습이다.

그의 행보가 이러한 바!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독극물과 같은 이야기라 확신하며 우리 청년학생들은 대전시민들과 함께 이회창의 대전에서의 강연을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회창은 즉시 대전행 티켓을 취소하고 자신의 삶과 행보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온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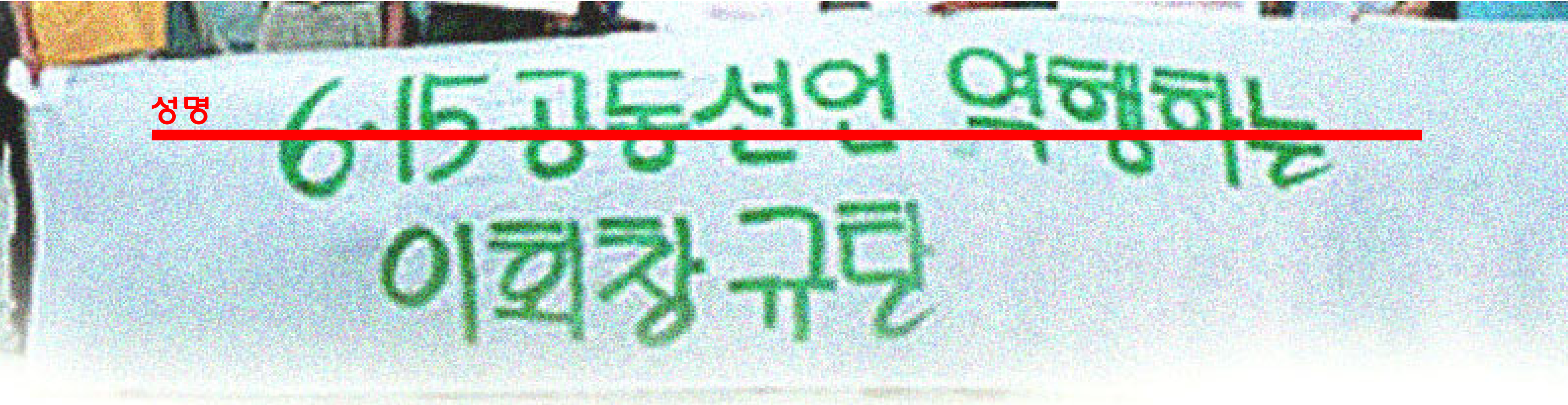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대전에서의 강연을 기어코 강행하려 한다면 충청총련 15만 청춘은 6. 15 남북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대단결하고 있는 대전,충남 애국 시민들과 함께 이회창의 강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단죄할 것며 이회창은 최근 ≪이회창 스토커≫라 이야기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저력(?)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자주, 민주, 통일의 정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역행하고 저지하려는 행위는 언제이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진리이다.

이회창은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 보고 민족과 국민의 편으로 설 때만이 강연다운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청년학생들의 엄중한 경고를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지역 대학 총학생회 연합
2001/08/08



한나라당 규탄 시국성명서

≪시일야방성대곡≫나라의 주권이 송두리채 일본제국주의에 빼앗긴 현실을 개탄하며 토해낸 한 우국지사의 그 심정으로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지난해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남북의 두 정상에 의해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반세기의 대결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단결과 통일의 새역사의 시작을 선포한 것으로서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에 있어 절대절명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7천만 겨레 모두는 그동안 벅차오르는 흥분과 감동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함없는 노력을 벌여왔던 것이다.

올해 8월 평양에서 열린 공동행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전체 민족의 총의가 모아지길 간절이 염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들은 대회 전부터 대회를 파탄내려 노력하더니 급기야는 평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침소봉대하고 확대과장하여 통일대회를 흠집내고,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하며 민족의 통일염원을 짓밟고 있다. 이는 시대착오적 대결주의의 전형적 모습이자,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고 615남북공동선언을 훼손코자하는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 만행들일 뿐이다.

한나라당을 위시한 수구냉전세력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진정 역사의 시계바늘을 통일이 숨을 죽이고 야만적 대결주의가 판을 치던 저 암흑의 시대, 분단과 대결의 시대로 회귀시키고자 하는가? 그대들은 진정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을 외면하고 7천만 겨레와 등을 돌릴 작정인가?

진정 그렇다면 그대들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거세찬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민족의 미래가 위협받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역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대들이 계속해서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으며 7천만 겨레의 염원을 짓밟고자 한다면 우리는 민족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역사는 민족을 외면한 세력의 종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민족대단결을 향한 통일진영의 노력에 대한 흠집내기와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통일의 길로 나서라! 그것만이 그대들이 역사와 민족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한나라당에 준엄히 경고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행위가 하나같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수구냉전세력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계속한다면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나라당 해체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이 땅에서 정치정당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동안 저질러온 반통일적 행각에 대해 민족 앞에 사죄하고 통일의 길로 나서라.

8월 통일대회에 대한 흠집내기와 트집잡기를 당장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반민족, 반통일적 정치행위 중단하라!

반통일 수구냉전세력의 대표, 이회창 총재는 민족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8월 통일대회와 관련하여 구속된 애국통일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통일의 길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9월 3일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서울대 학우 일동

각계층 민중속에서 이회창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 주체 90년 6월 26일

지금 각계층 민중은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걸림돌이라며 그가 속히 정계에서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터가 각계각층 1,350명을 대상으로 ≪이회창은 이대로 좋은가≫라는 물음의 여론조사를 한데 따르면 92.3%가 그를 빨리 정계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써 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며 그 이행의 시계방향을 거꾸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는 것, 이른바 ≪북에 퍼주기≫를 떠들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냉전논리만 펴고 있다는 것 등입니다. 바른소리센터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국민들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은 그가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앞장에 서서 반대하는 반민족반통일 행동만을 자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은 ≪4.8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는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것이 없다느니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대표단에 그 구성원으로 한나라당대표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여당의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때에는 남북공동선언의 자주적통일부분이 주한미군의 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하면서 악의에 차서 시비질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북공동선언발표 후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교류가 진행될때에는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재동을 거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중과 더불어 온 지구촌이 남북공동선언발표를 두고 남북통일의 자주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역사적 쾌거라고 높이 평가하며 기뻐할때 유독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만은 민족적 정서에 칼질을 해대고 있으니 어찌 국민으로부터 반통일분자, 통일의 걸림돌로 낙인찍히고 규탄받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민의와 대세를 따르면 살고 그것을 거역하면 죽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전폭 지지하고 그의 성실한 이행으로 통일을 앞당기자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이회창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가련하고 추악한 인간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에게 돌아갈것이란 국민의 경멸과 민중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회창을 따르는 정치인들도 달리는 될수 없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경거망동하지말고 이제라도 민족앞에 죄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게 아닙니다. 이회창은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재동을 거는 일체 반통일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회창이 국민들의 정당한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계속 반민족반통일적 행동만을 자행한다면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 걸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을 규탄하는 노농대중의 목소리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20일~21일

지금 노동자, 농민들속에서는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고 반북대결을 고취하는 이회창을 규탄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장명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우리 민족의 핏줄을 이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적극 동조하면서 이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세계에서 그들의 군사적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당치않게도 이북의 군사적위협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반북대결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그래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고 이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이회창을 그대로 놔두면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없고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도 이루어질수 없으며 전쟁까지 터질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를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전쟁의 참화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면 이회창을 당장 정계에서 들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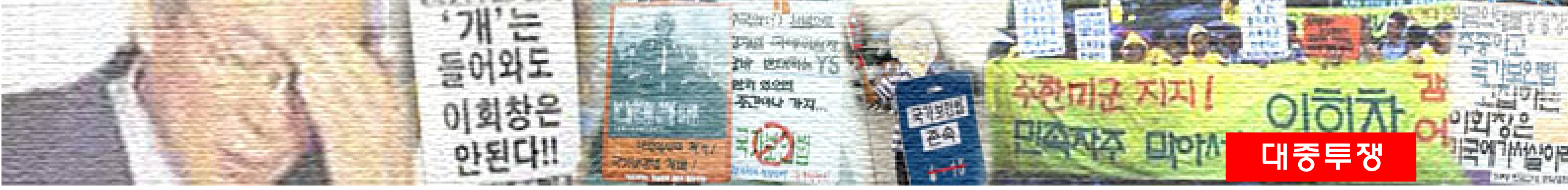
대우차노동자 김철순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말로는 우리 노동자들을 생각하는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공권력을 노동자탄압에로 부추기고 있다. 지난 6월 이회창의 한나라당은 생존권사수를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가뭄에 파업이란 무슨 말인가, 이런때 파업을 하는건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들의 생존권요구투쟁을 적극 반대해 나섰다. 그들의 이같은 처사는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회창은 한나라당이 우리 노동자들을 모독한데 관해 사죄하고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노동자들은 무쇠주먹으로 박살낼 것이다.≫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이광호씨는 이제는 이회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이 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말에 집안망신은 **이 시킨다고 했다. 이씨문중의 ***는 이회창, 그가 정치를 할때마다 이씨왕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통령꿈을 꾼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속에 권력욕과 치부욕, 심술이 가득하고 역적질만 하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잘될것이 없다. 그런데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 만난듯이 우쭐해서 돌아치는 이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이회창은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의 초보적인 자격이 없다. 전주이씨를 욕되게 하는 이회창을 문중족보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건국대학교에 특강을 하려갔다가 학생들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함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5월 28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22일 저녁 건국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었던 이회창이 정문에서 학생들에 의해 출입을 저지 당하는 바람에 특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이회창을 학교에 입장시킬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회창일행을 학교에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회창은 사태가 이쯤 번졌으면 두말 없이 돌아가야 하겠으나 학교측이 나서서 학생들을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측도 ***했을 뿐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회창이 건국대학교에 특강을 하러 갔다가 학생들의 저지를 받은 것은 당연한 봉변입니다.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애국민중은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을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야당총재로, 반통일분자로 낙인하고 그가 정계에서 즉시 물러 날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회창이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개선할 수 없고 시국이 혼란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평양상봉 자체를 반대하던 이회창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것을 시비해 나섰는데 남북공동선언의 ≪자주적 통일≫ 부문이 주한미군의 철수여부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앞장에 서서 시비질을 했습니다.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가슴아파하면서 현정권이 북에 끌려 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놀았습니다.

이회창의 이런 행태는 우리 민중 속에서 뜨겁게 가열되는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입니다.

민의와 대세를 따르면 살고 그것을 거역하면 죽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전폭 지지하고 그의 성실한 이행으로 통일을 앞당기자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이회창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가련하고 추악한 인간이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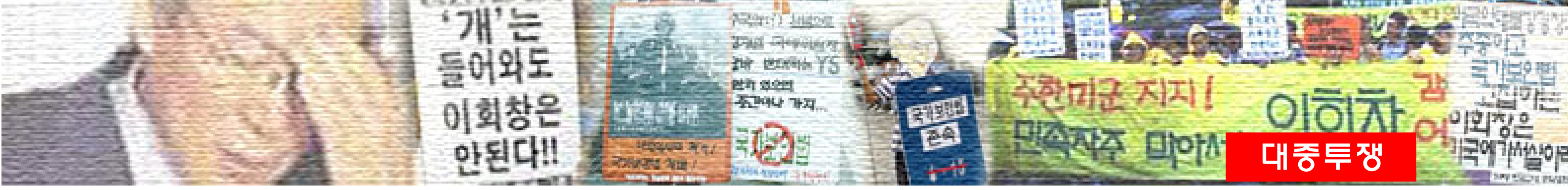
그러니 이회창이 가는 곳마다에서 봉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야당총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고서야 무슨 체면에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이회창은 똑똑히 깨닫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회창이 지난 시기와 같이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노는 반통일적 언행만 하다간 국민의 경멸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이제라도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충고할 때 ***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들이 한나라당해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9월 6일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서울대학교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사현관 유리창과 현관에 계란과 페인트봉지를 던지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들은 반통일, 반민족세력 한나라당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반통일, 반민족세력인 한나라당을 기어코 해체시키려는 굳은 의지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한나라당을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며 해체를 요구한 것은 민중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4.8합의서≫가 나올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통일, 반민족적행위만을 자행해왔습니다. 이미 세상에 널리 폭로된 문제입니다만 한나라당은 ≪4.8합의서≫가 발표될때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하며 시비질을 했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을때는 공동선언에 자주적통일부분이 주한미군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이산가족상호방문은 상호주의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할 때에는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북에 끌려다는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욱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평양에서 있은 8.15민족통일축전 남측대표단의 일부성원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된 개폐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서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정국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북이 통일부장관에게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낸데 대해 어느 일개 장관을 구출하기 위한 우호적수단이라느니, 어느 장관에 대한 신임의 표시라느니 하고 험담을 늘어놨습니다.

한나라당이 북의 실무대화제의가 국사에 관한 문제인지,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인지, 일부장관에 대한 문제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은 그들의 저속성을 드러내 보일뿐 아니라 자주적평화통일을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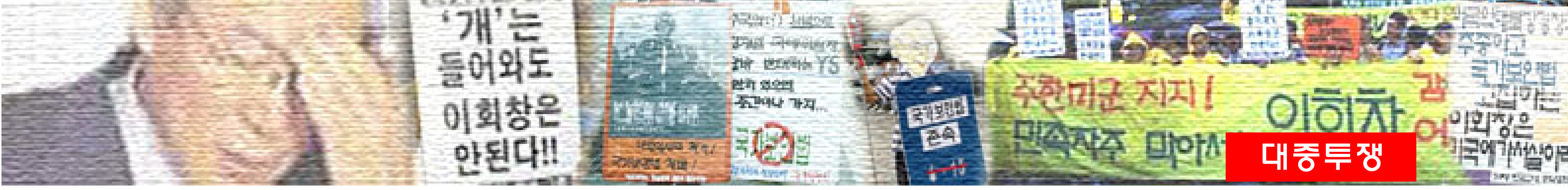
그래서 제반 사실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면 6.15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통일의 문을 열수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죠. 이를 **에서 볼때 서울대학교학생들이 반통일, 반민족세력 한나라당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환거리는 제때에 제거하는 것이 좋죠.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면 분단사상 처음 마련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수 없고 칠천만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해 통일의 문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바라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두목 이회창을 퇴진시키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에 ***하게 나서야 합니다. 이회창을 퇴진시키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는 길에 통일의 밝은 창구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극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인 시위의 위력!

무더운 8월의 더위 속에서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의 열기 또한 거세게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통일선봉대 동지들의 힘찬 투쟁과 함께, 또한 지역에서의 통일의 움직임도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족고대 서창이 그 동안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반성하고, 투쟁을 잘 전개해야겠다는 결의를 내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학내에 학우들이 거의 없는 방중기간이지만, 대신에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가겠다는 결의를 세우고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진행하고 있구요. 주민분들의 높은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이 뜨거울 정도로 많은 분들의 눈빛이 1인 시위를 하는 일꾼들쪽으로 쏠리고 있으며, 지나가던 차들도 서행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이렇게 커다란 관심에 왜 더 일찍 1인시위를 전개하지 못했던가 하는 반성이 들었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를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1인 시위의 내용은 역시 우리가 일궈내야 할 통일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의 제목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요즘 보수 족벌 언론 척결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조선일보 반대 투쟁도 진행중입니다. 또한 지난 8일엔 우리 조치원 지역에 반통일 세력의 우두머리 이회창이 온다고 하기에, 이회창을 반대하는 1인 시위 역시 힘차게 벌여 냈구요.

이러한 투쟁들이 주민분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지칠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혹 의문을 표하는 주민분들도 있긴 했지만, 차츰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수고한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다.≫ 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조치원에 자리잡고 있는 홍대 동지들과 함께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의 더위 만큼이나, 이 곳 조치원에서의 통일 열기도 높여내겠다는 결의로 더욱 뜨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역사적인 날. 연세대에서 뵙겠습니다. 투쟁!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충정총련 민족고대
2001/08/10 (15:57)

이회창 규탄 1인시위

민족고대 반통일세력 단죄규탄 투쟁위원회는 이회창을 규탄하는 한나라당사앞 1인시위를 오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앞뒤에 ≪미군영구주둔, MD지지 이회창은 부시가 먼저인가? 국민이 먼저인가?≫, ≪친미친일, 반북반공으로 민족화해 좀먹고 대통령병 유발하는 이회충 박멸하자!≫ 등의 구호를 들고 1인시위를 3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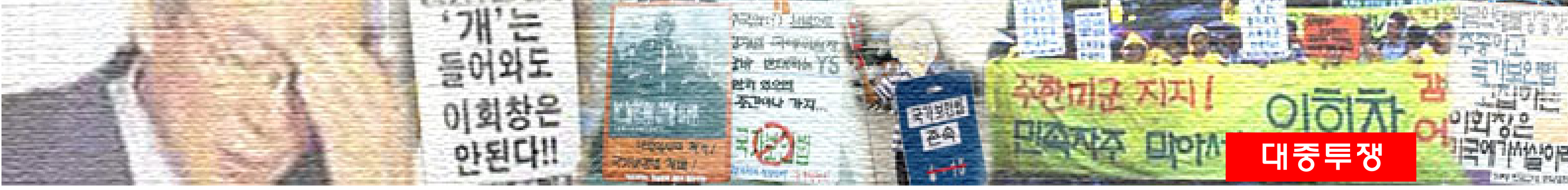
1년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설레임과 눈물로 맞이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분단 반세기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과 같은 극우보수세력들은 어떻해서라도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시비질하고 개혁을 가로막아 나서며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작태를 부려 민족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회창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서가 발표되었을땐 ≪가봐야 별볼일 없다≫며 시비를 걸고 615남북공동선언도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내용을 미군이 철수될 수 있다면서 통일후에도 영구주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관광은 퍼주기로 묘사하고, 경의선복원을 남침을 용이하게 한다며 악선전하며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마저도 답방사전작업이라며 남북교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작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인류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MD를 나서서 지지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때에도 한일관계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 반일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망발을 해대는 매국노입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대선에서 당선되려고 하는 그의 이같은 작태는 일제시대 친일검사보였던 아버지의 매국행각을 빼다 박은 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대사에서 가장 극악한 언론탄압으로 기록된 민족일보사장 조용수 사형판결을 한 판사가 다름아닌 이회창이였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그가 최근 말하는 ≪언론탄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잘 알게 해줍니다.

민족고대 반통일세력 단죄규탄투쟁위원회는 오늘 시작한 1인시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종 인터넷 선전과, 대국민 홍보활들을 왕성하게 벌여내며 이회창은 정치무대에서 끌어내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해
2001년 8월 21일
민족고대 반통일세력단죄규탄투쟁위원회



반통일 수구세력 한나라당 규탄대회

남남갈등, 남북대결 조장하는 반통일 수구세력 한나라당 규탄 대회

– 일시 : 9월 1일 12시
–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1. 전체 기조
– 민족적 합의 사항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거부하고, 당리당약을 위한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민족분열을 책동하는 반통일 수구세력 한나라당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 보수언론과 결탁하여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거부하려는 이회창을 규탄한다.
–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거부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부정하려는 반통일 보수세력의 대표적인 존재로 한나라당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2. 대회의 배치
– 16차까지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폐지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토요집회≫에 통일연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17차 토요거리마당을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 조직적인 동원을 기본으로 하고, 강력한 규탄의 내용을 담은 집회를 진행하고 반통일보수세력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선포의 내용을 담는다.
– 공개항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 자료를 배포한다.
– 참여단위들은 이후 ≪ 반통일 수구언론 조선일보 규탄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3. 식순
사전공연
사회
여는말씀 – 민족적 이익보다 당리당약을 앞세우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정치발언1 – 민족적인 합의사항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거부하고,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은 민족 앞에서 커다란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정치발언2 – 반통일 보수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문예공연(퍼포먼스)

2001/08/31

여의도 한나라당 투쟁 주간보고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정리된 여의도 한나라당 집회 일정 보고

9월 10일 – 보건의료노조
9월 12일 – 적십자 노조 / 민주노동당
9월 13일 – 범민련 남측본부
9월 14일 –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9월 15일 – 18차 토요집회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매일 계속되는 투쟁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반통일적이며, 반민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정코 반나라당을 원하고, 재벌옹호, 비리언론 사수, 반개혁을 고수한다면 그들은 분명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선거결과를 가지고 야당탄압을 외치기전에 대오각성할 것을 다시한번 더 권고합니다.

2001/09/13

18차 한나라당 규탄 토요집회 보고

제 18차 한나라당 토요집회가 지난 9월 8일 12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민족대단결 가로막는 한나라당 규탄대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 집회에는 통일연대 본부일군들, 범민련, 민가협, 민화련, 한청,서총련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님의 여는 말슴을 시작으로 민가협 임기란 어머님의 규탄연설, 유선희 구로청년회 회장님의 방북보고, 서울대 학생들의 9/3 한나라당 진격투쟁 보고 등의 순서로 이어졌고, 한나라당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남북대결을 강요하여 민족의 이익보다는 당리당약을 우선하고, 비이성적인 행태로 국민들의 이목을 흔들어 놓으려는 한나라당 특히 이회창이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만 하고, 한나라당은 반나라당으로 남으려는 반통일적인 행태를 즉각 중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운지 경찰의 방패뒤에 꼭꼭 숨어서 항의서한 접수마저 거부하는 비겁한 모습으로 어찌 민주주의를 논하려고 하는지 한나라당은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비겁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자진해서 해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는 매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계속해서 열릴 것이며,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전국에서 한나라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라도 있을 것입니다.

2001/09/10



이회창, ≪대쪽≫인지 ≪쭉정이≫인지

한총련, ≪이회창정치활동 감시 선언≫

한총련이 ≪이회창정치활동 감시≫에 조직적으로 나섰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7일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 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감시단)≫의 발족을 선언했다.

감시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에서도 보여 지듯이 ≪민족의 통일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행각을 접≫하며 ≪더이상 제어할 수 없는 ≪불도저≫가 되기 전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감시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정치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문제는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최우선적 과제로 확신한다≫며 이번 감시단활동을 통해 ≪이회창이 과연 ≪대쪽≫인지 ≪쭉정이≫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또한 이번 감시 활동을 통해 이 총재가 ≪함량미달≫의 정치인으로 판단될 경우, 그를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활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감시단은 최승환(한총련)의장을 단장으로 각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중심으로 1~2인씩 구성해 전국적으로 70여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족식 이후 활동에 들어가는 감시단은 부시대통령이 방한하는 10월 16일까지 1차로 활동을 전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보고와 향후 전망을 밝힐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감시단의 주요 활동은

△≪이회창 바로보기≫ 대국민선전홍보활동(유인물 1백만장 배포, 각 대학 정문에 ≪이회창바로보기≫ 선전판 세우기, 스티커제작배포, 자료집제작배포)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홈페이지 개통(http://hcy.jinbo.net/chang/)

△이회창총재에 관한 제보받기운동

△정기국회 한나라당감시활동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정치적 자질과 대선출마에 대한 전국대학생 의식조사

△전국대학 ≪목요 만민공동회≫개최(수집된 자료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장)

△전국 한나라당 당사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이회창 바로보기 공청회(가안) 등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고려대 박근운(반통일세력 단죄규탄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감시단발족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이날 프로그램엔 ≪맞다 맞아 이회창 Best 5≫를 준비해 대학생들이 뽑은 1위는 ≪부시 따라하기≫이고 5위는 ≪2대째 걸친 병역기피자≫로 선정된 것이 발표돼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경기대 이경민총학생회장의 한나라당에 보내는 경고장낭독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 됐다.

한편, 감시단이 한나라당에 경고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민원2국장(신원을 안밝힘)과 차용석차장이라는 사람이 당사 앞에서 감시단을 가로막고, ≪안받겠다, 이런 것 필요없다, 나도 국민이다≫ 등의 말을 하고는 접수조차도 못하게 막아 경고장 전달은 하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한나라당사 앞에는 같은 시간에 고려대 ≪반통일세력단죄규탄 투쟁위원회(반단투위)≫소속 김기열(01학번, 문과대)학생이 이회창 등 보수세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려대는 8.15행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반단투위를 구성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 중 하나가 한나라당사 앞 1인 시위라고 전했다.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보수수구세력에 대한 각계의 항의와 성명에 이어 대학생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이후 그 활동과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07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발족 선언문

우리 민족은 분단 이후 가장 가까이 통일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 민족에게는 반백년보다 값진 1년을 보냈다. 민족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허나 통일이 다가올수록 기득권이 축소되고 자신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세력이 있고 여기에 두목이 있다. 바로 이회창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더구나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집단은 통일뿐만아니라 온갖 허튼 수작을 부리며 사회의 진보와 민주, 나라의 자주도 가당치 않게 훼방을 놓고 있다. 그 도가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며 불안하게 만들려는 행보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고이즈미로 일컬어지는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이 나라의 정치발전과 국민과 민족을 위협하고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발언과 행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자가 우리 나라의 정치권에 그것더 야당총재에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민족의 미래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갖고 이를 국민들과 우리 대학생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통일과 사회의 민주발전을 올바르게 진척시키고 이 시대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역할을 당당히 해낼 것을 선언한다.

2001년 9월 7일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일동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에게 보내는 경고장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에게

민족의 장래와 나라의 민주적 발전에 언제 어디서나 시비질을 걸며 민족과 우리 국민의 우환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사인 매향리폭격장폐쇄, 주한미군범죄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반미운동을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며 강경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전 민족이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역사왜곡방조와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투쟁하는 것에 친아버지를 닮아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며 자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호통치는 꼴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야당총재인지 어느 민족족속인지 밝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인 이북을 향해서는 온갖 험담을 늘어놓으며 남북관계개선에 심술을 부리며 ≪북한퍼주기≫, ≪주적론≫, ≪철저한 검증론≫ 등을 유포하며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든 파기하려는 드는 것에 한나라의 야당총재로서 자질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기뭄에 무슨 파업이고 데모냐며 정부는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역시나 서민들의 생존을 야당총재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이회창총재의 죄행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심사숙고하여도 도저히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회창총재께서 이렇듯 이 민족과 나라에 위험스러운 발언과 행보를 일삼고 이를 살펴볼때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의도가 충분히 나타나고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젊고 새것에 민감하며 정의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학생으로 사명과 도리를 다하고자 이회창총재를 주시하며 더 이상 이러한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회창총재는 이 같은 죄행을 즉시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다면 민족에 버림을 받고 국민에 지탄의 돌을 얻어맞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말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철없는 젊은 대학생들의 말이라고 생각마시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2001년 9월 7일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기자회견문

이 땅의 대학생들이당신의 행보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철학의 빈곤이 정치의 빈곤을 낳으며, 철학이 부재한 한 정치인의 행보가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근 2001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의 소위 ≪돌출행동≫ 시비와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에서도 보여지듯 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정치인은 절대 이 나라 운명을 걸머질 수 없다 우리는 숭고한 민족의 통일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이회창한나라당총재의 정치행각을 접하며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불도저≫가 되기 전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었다.

이회창총재는 자신을 스스로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그가 이번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이후 스스로 ≪국권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발언한데서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정권출범을 위한 충성맹세까지 했다고 하니 대권만 잡을 수 있다면 나라의 통일이건 뭐건 간에 상관 않겠다는 그 발상이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만약 이회창총재가 민족의 통일을 절절히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자신을 대통령감이라 추켜세우기에 앞서 과연 그런 커다란 짐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정치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문제는 한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하기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인 대학생들이 나섰다. 우리는 이회창총재의 정치활동 감시를 통해 그가 과연 ≪대쪽≫인지 ≪쪽정이≫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은 이회창 총재를바로 보기 위한 대국민선전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유능한 법관 출신, 대쪽 정치인... 이것이 이회창 총재의 우상화된 이미지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자질과 행동이 과연 그러한 이미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그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정당 총재로서 과연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아찔하기조차 하다. 우리는 이회창총재의 아버지가 친일전적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정치활동 전과정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만큼 투명했는지 철저히 밝혀내 대대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우리는 이회창총재의 자그마한 정치 행보도 놓치지 않고 감시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규탄하기 위한 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이다. 비리언론사주 법적처벌 하자는데 언론탄압이라며 오히려 비리주범을 옹호해 나서는 정치인, 백범 김구선생 암살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마당에도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주장하는 정치인, 민족의 대동맥 경의선 철도 연결하자는데 북의 남침통로 열어주는 것이라며 색깔시비를 조장하는 정치인... 우리는 이회창총재의 발언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 결정적 장애가 되었음을 확신한다. 앞으로 대학생감시단은 이회창총재의 이러한 행각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의 활동을 한국사회 올바른 정치풍토정착과 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 사회단체까지 확대해 갈 것을 다짐한다. 한국에서 민생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전투구의 장으로 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희생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마저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통일시대를 눈앞에 둔 한국의 정치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정치가 바로 서는 것은 비단 대학생들만의 바램이 아닌 전 국민적 염원이기에 우리는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활동을 한국의 모든 시민 사회단체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며 확대해 갈 것이다.

이번 감시활동을 통해 이회창총재가 ≪함량미달≫의 정치인으로 판단될 경우 그를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활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이것이 다가올 통일시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땅 백만 대학생들의 ≪행동 선언≫이다.

2001년 9월 7일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단장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승환)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는 범죄적 행위

김상진 / 구국전선 주체 90년 9월 1일

공안당국이 이회창 등 반통일세력의 반북대결책동에 편승해서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하여 의로운 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대표들에게 그 무슨 ≪방북승인조건위반≫이니, ≪이적행위≫니 뭐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걸어 탄압하고 있다.

파쇼공안당국은 지난 8월21일 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표 3백11명가운데서 16명을 현장에서 연행해 갔으며 24일에는 동국대 강정구교수와 범민련 부의장 김규철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공안당국은 그밖에도 다른 방북인사들도 소환조사중이라고 하면서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추가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강교수에게 이북체제를 찬양할 목적으로 ≪만경대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찬양, 고무죄를 적용하고 김규철씨 등 범민련 간부들에게는 정부의 방북승인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방북해 범민련연석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잠입, 탈출죄를 적용했다.



공안당국이 이들을 사법처리대상으로 삼은 것은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공동선언이행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하여 마련한 행사이고 방북단 대표들이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한 것이나 묘향산, 백두산 참관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은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실현에 기여한 의로운 행동이며 결코 탄압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쇼공안당국이 일부 반통일보수세력들과 반북대결논리에 편승하여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을 ≪이적행위≫니, ≪방북승인조건위반≫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써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에 더 큰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지금 우리 민족은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20세기가 아니라 민족자주통일의 길이 열려진 새 세기에 살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수치스러웠던 지난날과 결별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남과 북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된 때에 이렇게 ≪안보≫요, ≪이적≫이요 뭐요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걸어 방북인사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반통일역적행위이다.

파쇼공안당국은 저들의 이러한 책동이 온 민족 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를 똑똑히 명심하고 방북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수사중인 방북인사들을 전원 석방시켜야 한다.

이회창 놔두면 제2의 6.25가 터진다

재야인사 김학성씨의 글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9월 1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민족대단합과 자주통일에로 내달리던 겨레의 통일운동이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동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으로 화해와 단합에로 향하던 남북관계가 긴장격화에로 치닫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족앞길 가로막기에 적극 추종하면서 제2의 냉전을 몰아오고 있는 이회창의 친미사대매국행위로 인해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회창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지지찬양하면서 이땅을 미국의 살인무기전시장, 핵전쟁화약고로 만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이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섬겨 바치기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역사적인 공동선언의 발표되자 남북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주한미군문제가 거론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비하던 이회창은 주한미군이 한반도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느니 뭐니하면서 미국의 더러운 옷섶에 매달려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고 있다. 심지어 이회창은 온 겨레, 온 세계가 적극 지지 찬양하는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이땅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식민지 정견으로써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이회창은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투명성≫, 철저한 ≪검증론≫을 떠벌이며 남북문제를 대결의 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불변론≫, ≪북한퍼주기론≫ 등 허구적이며 반민족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남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다.

특히 이회창은 이번에 진행된 평양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대표단성원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두고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느니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느니 하면서 악의에 차서 비방, 중상, 왜곡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표단 성원들의 활동을 빌미로 삼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또다시 떠벌이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려세워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제도통일론을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흡수통일로 동족인 이북을 집어삼키겠다는 이회창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본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회창의 이같은 책동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이땅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지향과 의사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이회창은 이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섬겨 받치는 댓가로 대통령자리를 타고 앉으려고 하고 있다. 만일 이런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땅에는 제2의 6.25전쟁이 터지게 되고 우리 민중은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언제가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낼수 없음은 물론이고 한국민은 미국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그러니 우리 민중이 어찌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그대로 놔둘수 있겠는가. 현실은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하는 준엄한 이 시각에 각계 민중은 미국의 핵전쟁머슴군,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해 나서야 한다. 만일 이회창이 민의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상쟁과 분열책동에 광분한다면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역대 사대매국노들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땅의 각계 민중은 거족적인 반이회창투쟁의 불길로 희세의 친미사대매국노, 전쟁미치광이인 이회창을 단호히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날을 기어이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반이회창투쟁과 청년학생의 자세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9일~11일

지금 이회창의 반민주, 반통일행위가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이회창은 온 민족, 온국민이 지지하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며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희세의 매국노, 극악한 민족반역자인 이회창을 둬두면 6.15공동선언이 이행될수 없고 남북사이의 대화는 물론 화해와 협력도 이루어질수 없다. 더욱 이는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져 전쟁까지 터질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그 희생물이 될수밖에 없다.

이회창의 존재는 이제 백해무익하며 이자를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의에 가차없고 정의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국의 부름에 호응하여 거연히 일어나 반이회창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속에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죄악을 폭로단죄하는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이다. 대민홍보활동은 반이회창투쟁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 작업이다. 청년학생들은 현시기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이회창애비의 친일행적문제를 비롯하여 지난시기 이회창이 법관의 모자를 쓰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을 휘둘러 수많은 통일애국민주인사들을 탄압학살한 죄행을 낱낱이 폭로단죄해야한다.

이와함께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회창이 저지른 온갖 반통일적, 친미사대주의적, 반민주적 행위들을 사사건건 문제시하고 그로부터 초래될 악결과를 각계민중에게 널리 선전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민족앞길가로막기에 부화뇌동하면서 철저한 검증론, 상호주의, 북한퍼주기시비, 주한미군영구주둔을 부르짖으며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제2의 냉전을 몰아와 우리 민족을 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이회창의 죄행을 여지없이 발가놓아야 한다.

반이회창홍보활동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시간과 장소, 수단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능숙히 구사해나가는 것이다. 한총련과 총학생회들은 조직별로 그리고 자체의 실정에 걸맞게 선전반조직, 시내홍보, 전자우편발송, 인터넷을 통한 선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회창의 죄행과 위험성을 폭로함으로써 각계 민중속에 반이회창여론을 높여나가야 한다.

현시기 반이회창투쟁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청년학생들이 이 투쟁을 6.15공동선언관철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벌여나가는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반이회창구호를 들고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통일의 원수 이회창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8.15를 계기로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거세찬 파고속에서 이회창의 주적론, 검증론, 상호주의철회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극악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켜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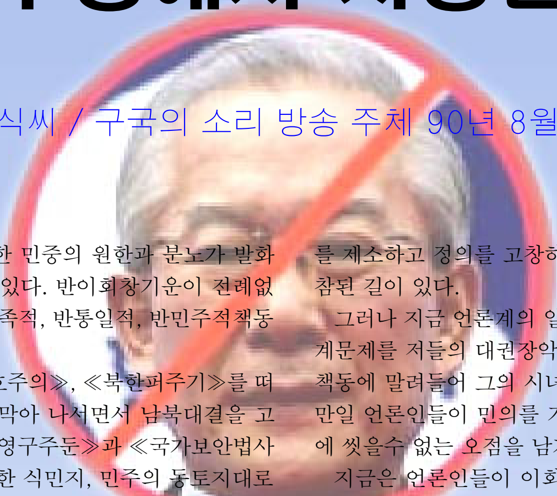
각계 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반이회창투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청년학생들이 각계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하여야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민주통일세력의 단결을 강화해서 이회창역적을 종국적으로 매장할수 있다. 청년학생들이 올 상반기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화강요를 반대하는 노동형제들의 투쟁에 연대투쟁으로 확대해나선 것이나 방학을 맞아 농활, 공활을 주동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다.

최근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이회창퇴진운동에 나설것을 선언한 조건에서 반이회창투쟁의 구호를 들고 지체없이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범국민적 투쟁에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이회창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추악한 사대매국과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적 행위만을 일삼는 이회창역적이 민족과 국민의 버림을 받고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힐 날은 멀지 않았다. 역사는 그가 누구이든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역할때 수치스런 파멸과 개죽음을 면치 못한 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뜨거운 열정과 정의로움을 간직하고 반이회창투쟁의 선봉에 서서 각계 민중과 힘을 합쳐 민족의 수치인 반역아 이회창을 기어이 매장하고야 말것이다.



반이회창투쟁에서 지성인들의 자세



재야언론인 김영식씨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23일~24일 26일

지금 이땅에서는 이회창일당에 대한 민중의 원한과 분노가 발화점을 찾아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반이회창기운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이회창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주적책동에서 비롯된 필연적 귀결이다.

이회창은 이른바 ≪검증론≫, ≪상호주의≫, ≪북한퍼주기≫를 떠벌이며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면서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영구주둔≫과 ≪국가보안법사수≫를 주장하며 이땅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 민주의 동토지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이회창을 뒤둔다면 6.15공동선언은 관철될수 없고 우리 민족은 무서운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현실은 민족의 수치인 반역아 이회창을 매장하는 투쟁이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지성인들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정의와 진리의 홧불을 치켜들고 반이회창투쟁에 과감히 나서야한다. 지성인들은 진리의 전파자이고 정의의 옹호자이며 애국의 선도자이다. 지성인들은 정의에 목소리로 이회창역도가 겨레와 민족앞에 저지른 온갖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만천하에 고발단죄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이회창 애비의 친일행적을 비롯해서 역적가문의 뿌리깊은 반민족적죄악상을 까밝혀놓아야 한다. 이와함께 이회창역도가 법관의 모자를 쓰고 군부파쇼독재의 하수인이 되어 자행한 반민주적범죄행위들을 폭로단죄해야한다. 이회창은 법관의 감투를 뒤집어쓴 첫날부터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수많은 통일민주인사들을 처형하고 민주언론탄압에 앞장섰던 폭군이며 민주의 원수, 언론탄압의 광신자이다.

지난 1961년에 민족일보사건 당시 이회창이 저지른 죄행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당시 담당판사였던 이회창은 반민주악법의 칼날을 휘둘러 조용수사장을 반국가단체 동조혐의로 사형시켰고 이 신문을 창간 3개월만에 강제폐간시켰다.

지성인들은 언론탄압, 인권탄압의 광신자인 이회창의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폭로함으로써 광범위한 민중을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궐기시켜야한다. 언론인들은 사회의 목탁이고 사회여론의 대변자이다. 오늘 언론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반이회창투쟁의 필봉을 드는 것보다 더 신성한 사명은 없다. 불의를 제소하고 정의를 고창하는 바로 여기에 언론인의 본분을 지키는 참된 길이 있다.

그러나 지금 언론계의 일각에서는 언론사세무조사문제와 남북관계문제를 저들의 대권장악음모에 이용하려는 이회창일당의 교활한 책동에 말려들어 그의 시녀노릇을 일삼는 행태들이 속출하고 있다. 만일 언론인들이 민의를 거역하고 불의에 타협한다면 역사와 후세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언론인들이 이회창의 시녀가 아니라 민의의 대변자로써 진실을 말하고 반이회창 언론활동을 벌여나가야 할때이다. 정의와 양심에 살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언론인들은 자기들이 쥔 붓이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행위를 해부하는 메스가 되고 한편의 글이 이회창을 심판하는 고소장이 되게 해야한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진리와 애국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민족의 교사들이다. 정의에 사는 참다운 스승이고 교사라면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식민지파쇼독재영구화를 꿈꾸는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반민주파쇼악당 이회창을 민족의 명부에서 지워버려야 할 시국의 부름에 외면할수 없다. 민족적 양심을 가진 이땅의 모든 교수들은 제자들을 반이회창투쟁에로 적극 선도하고 그들과 함께 어깨겯고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한다. 교수들의 애국행동은 제자들의 힘이다. 교수들은 4.19와 5.18광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싸운 그 기백과 용단을 되살려 반이회창투쟁으로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떳떳한 자국을 새겨가야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각계민중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이다. 지성인들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민중과 굳게 연대해서 단합된 힘으로 반이회창투쟁에 나서야한다. 더욱이 160여개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운동이 반이회창투쟁을 선언한 조건에서 이에 적극 지지동참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투쟁열기를 더욱 북돋아 주고 광범위한 민중을 반이회창투쟁전선에 묶어 세움으로써 이회창일당에게 무자비한 패배를 안겨야한다.

사대매국과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행위만을 일삼는 이회창역적이 국민의 버림을 받고 영영 매장될 날이 멀지 않았다. 지성인들은 각계민중과 어깨겯고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림으로써 역도의 마지막 숨통을 기어이 끊어버려야 할것이다.



반이회창투쟁과 노동대중의 과제

신문개혁국민운동본부 강정명씨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22일~24일

지금 이회창의 반노동자적행위가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회창일당은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회불순세력의 준동, 집단이기, 시민안정침해, 폭력으로 매도하면서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회창일당의 이같은 반노동자적행위에 분노한 노동자들속에서는 반이회창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이루다 헤아릴수 없이 비참하다. 미국이 몰아온 3년간에 걸친 아이엠에프의 신탁통치로 인해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전락되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수많은 실업자들과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신음하고 있다.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되고 그들의 자식들이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사회의 고난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이고 있는 것이 이땅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생존권쟁취를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기힘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일당은 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화강요에 따른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부추기고 있다. 현실은 이회창일당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반노동자적 친미파쇼매국집단이며 이회창을 그대로 두어두면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은 더욱 무참히 유린당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대중에게 있어서 이회창의 존재는 백해무익하며 이자를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나선다.

1,300만 노동형제들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결연히 일어나 반이회창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고 물러설래야 물러설수도 없는 노동대중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죽음에로 몰아가려는 이회창일당의 반노동자적행위를 투쟁으로 단호히 저지분쇄해야 한다. 오직 투쟁만이 살길이다.

노동대중은 87년 7, 8월노동자대투쟁과 97년 1, 2월총파업투쟁, 한보사태진상규명투쟁 등에서 발휘한 그 기개와 용맹을 되살려 거족적인 반이회창투쟁에 한사람같이 일어나야 한다.

노동운동가들과 민주노조는 반이회창투쟁의 당위성을 광범위한 노동대중속에 알려주어 그들이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경향각지의 모든 지역 사업장들에서는 이미 지펴든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화와 조선일보반대운동의 불길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집시켜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힘있게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각노조들간의 연대공동투쟁을 실현하는 것이다. 노동운동가들과 민주노조들은 오늘의 반이회창투쟁에서 업체와 업종간, 부문간, 지역간에 굳게 연대해서 산별, 기업별 전국적결집도를 높여 1,300만 노동자가 함께 싸워 승리하는 단결과 투쟁의 길로 나가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은 노동자들의 생존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반이회창투쟁은 민중의 생존과 직결된 투쟁으로써 노동자의 적, 국민의 적을 징벌하는 투쟁이다. 노동대중은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재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들과 굳게 연대해서 반이회창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범국민적투쟁으로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더욱이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민개혁국민행동운동이 이미 반이회창투쟁을 선언한데 따라 이 투쟁에 적극 합세해서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 한다.

추악한 사대매국과 반통일, 반민족, 반노동자적 행위만을 일삼는 이회창역적이 노동대중과 민중의 버림을 받고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될 날은 멀지 않았다. 한국민중의 운명을 양어깨에 걸머지고 시련의 언덕을 넘고 넘으며 자랑스런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노동대중은 변혁운동의 앞장에서 반이회창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노동자가 주인된 자주의 새 세상, 민주의 새 낙원, 통일의 새 조국을 반드시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반이회창투쟁과 종교인들의 자세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9월 4일~6일

지금 이회창의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중적작태가 날이 갈수록 극도에 이르고 있다. 이회창은 온 겨레가 일치하게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고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론을 부르짖으며 제2의 냉전을 몰아오고 있다.

얼마전엔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까지 걸고들면서 선언에 명시된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이땅의 안보를 해친다느니 뭐니하면서 대북관계의 재검토를 운운하면서 미국의 정견, 친미사대매국노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드러냈다. 심지어 이회창은 차기 대통령자리까지 넘겨다보면서 이땅을 영원한 미국의 식민지, 민주의 동토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회창의 이러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민중적행위는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 커다란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선의를 귀중히 여기는 이땅의 모든 종교인들은 마땅히 민중대하의 흐름에 합세해서 반이회창투쟁에 과감히 나서야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언제나 투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싸운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민중을 반외세투쟁에로 궐기시킨 동학의 이념과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항일의 기치아래 전민항쟁에 합세했던 천도교인들의 투쟁 그리고 식민지 이땅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리고 있는 종교인들의 투쟁은 민족의 자랑이며 민족민주운동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민족을 팔아먹고 겨레에게 화만 끼치는 악의 무리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징벌하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의 의지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희세의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파쇼분자로써 우리 종교인들 아니 전민중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악마이며 인간세상에서 추방해야할 카인의 후예이다.

종교인들은 지난 기간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과 정신을 되살려 반이회창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종교인들은 먼저 각 종단에 망라되어 있는 신도들속에 이회창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낱낱이 폭로단죄함으로써 그들이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궐기시켜야한다. 그리고 신도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척, 친우,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반이회창투쟁을 확산고조시켜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각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이 신앙과 종파를 초월해서 반이회창투쟁에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종교인들이 각계 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것이다. 민족위에 신이 없고 민족위에 어떤 계급이나 당파적이익이 있을수 없다.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간격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칠천만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날과 더불어 더욱더 절감하는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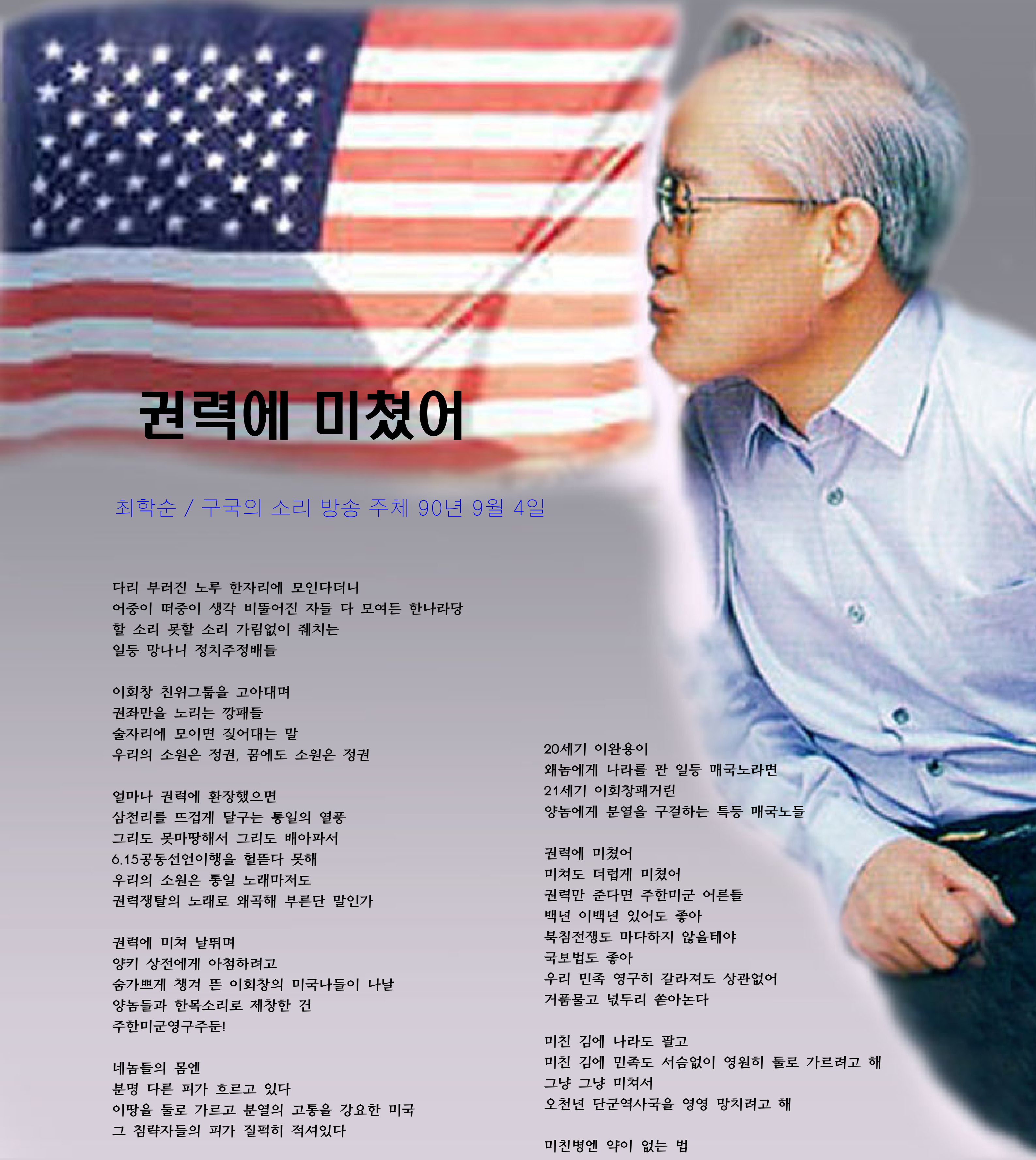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들과 여러 운동단체들사이, 신도들과 각계 민중과의 공동연대투쟁을 힘있게 벌여 범민중적인 반이회창투쟁전선을 형성해야한다. 당면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야 한다.

특히 16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이 반이회창퇴진운동을 선언한 조건에서 여기에 적극 지지동참해서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여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민중을 이 투쟁에 적극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회창을 둬두면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핵전쟁의 희생물로밖에 될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이다. 하기에 우리 국민은 반이회창투쟁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 일각에서는 이회창에 대한 분노심을 가슴속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선뜻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들의 마음속에 응축된 분노심을 반이회창투쟁으로 폭발시키는 선도자,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세게 타오르는 민중의 분노로 이회창대세론을 때려부수고 역적을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어야 할 것이다.

반미자주냐 식민지노예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민주냐 파쇼냐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 종교인들이 지닌 사명과 의무는 막중하다. 종교인들은 시대와 민중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서 숭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민중의 원수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종소리를 더높이 울려야 한다.





권력에 미쳤어

최학순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9월 4일

다리 부러진 노루 한자리에 모인다더니
어중이 떠중이 생각 비뚤어진 자들 다 모여든 한나라당
할 소리 못할 소리 가림없이 줴치는
일등 망나니 정치주정배들

이회창 친위그룹을 고아대며
권좌만을 노리는 깡패들
술자리에 모이면 짖어대는 말
우리의 소원은 정권, 꿈에도 소원은 정권

얼마나 권력에 환장했으면
삼천리를 뜨겁게 달구는 통일의 열풍
그리도 못마땅해서 그리도 배아파서
6.15공동선언이행을 헐뜯다 못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마저도
권력쟁탈의 노래로 왜곡해 부른단 말인가

권력에 미쳐 날뛰며
양키 상전에게 아첨하려고
숨가쁘게 챙겨 뜬 이회창의 미국나들이 나날
양놈들과 한목소리로 제창한 건
주한미군영구주둔!

네놈들의 몸엔
분명 다른 피가 흐르고 있다
이땅을 둘로 가르고 분열의 고통을 강요한 미국
그 침략자들의 피가 질퍽히 적셔있다

정말 그래
너희들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회창
따져보면 애비는 친일파, 경력은 파쇼독재의 돌격대
하나에서 열까지 역사를 거슬러 온 반역의 화신

20세기 이완용이
왜놈에게 나라를 판 일등 매국노라면
21세기 이회창패거린
양놈에게 분열을 구걸하는 특등 매국노들

권력에 미쳤어
미쳐도 더럽게 미쳤어
권력만 준다면 주한미군 어른들
백년 이백년 있어도 좋아
북침전쟁도 마다하지 않을테야
국보법도 좋아
우리 민족 영구히 갈라져도 상관없어
거품물고 넋두리 쏟아논다

미친 김에 나라도 팔고
미친 김에 민족도 서슴없이 영원히 둘로 가르려고 해
그냥 그냥 미쳐서
오천년 단군역사국을 영영 망치려고 해

미친병엔 약이 없는 법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해
권력에 미친 이회창무리
민중방망이로 족쳐대자
이땅에서 씨종자조차 없애버리자